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공학박사 학위논문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for Urban Regeneration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계획전공

박 정 은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for Urban Regeneration

지도교수 정 창 무

이 논문을 공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 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계획전공

박 정 은

박정은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 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그동안의 물리적 개발방식에 대한 대안적 수단으로 도시재생이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물리적 전면철거 위주의 도시재생 방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재생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은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종합적 고려가 간과되어 왔기 때문에 궁극적 의미에서 도시재생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리적 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에서 사람, 특히 일자리가 최근 핵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는 기존의 공간(place)에 사람(people)을 연계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사회적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의 '사람'은 여러 가지 부문 중 특히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왜냐하면,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경제적 재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하여 공동체의 역량 강화 등 사회적 재생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편적 문제해결 방식으로, 그리고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공간적 재생의 관점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을 뿐, 둘 사이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이 공간과 사람(일자리)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며 바람직한 수단임에도 아직까지 도시재생에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현실적으로 공간과 사람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립성' 확보이다. 사회적기업의 취지와 목적이 모두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실에서 사회적기업은 자립성 확보라는 가장 큰 벽에 부딪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육성하고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자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 종료와 함께 폐업하거나 더 이상 사회적기업 이기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과 사람 사이의 연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과연 어떠한 요인이 지속가능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것일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들은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지역과의 연계는 어떻게 일어나며 왜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작하여 연구질문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가장 먼저 공간과 사람(일자리)을 연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사회적기업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적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을 도출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양적연구 방법으로서 다중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과 질적연구 방법으로서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결합한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 research)을 활용하였다.

통합연구방법을 통하여 지속가능성 요인을 도출한 다음 사회적기업 성장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요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들이 어떠한 순서로 작용하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과정분석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성장과정에서 지역이라는 공간과는 어떠한 연관관계를 맺는지, 어떠한 도시재생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여러 해외 선행연구 결과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과 생산·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은 별개의 문제가 아

닌, 상호 긍정적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한 수익이 창출되어야 사회적 목적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존의 일반적 사고였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이 수익창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수익창출의 핵심수단으로서 사회적 목적 실현 수단을 구체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 생산 및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취약계층 근로자수, 취약계층 근로자 1인당 교육 및 훈련비, 정부 인건비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자본, 자치구내 사회적기업 당 주민등록인구, 지역사회 이윤환원이 주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 정부지원금 중 인건비 지원비중, 근로자 교육 및 훈련 등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목적 실현수단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이윤환원,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순으로 생산 및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은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였다. 성장기 단계에서는 인건비 중심의 정부지원금, 교육 및 훈련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성장기 단계의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취약계층 생산성 향상에 매진하게 된다. 다음으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이윤환원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성숙기로 접어들면서는 정부지원금 중 사업개발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기 기업에서 사업개발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전문성을 강화하여 매출액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현재 고용인원을 유지시켜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내용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성장기에 이르면 사회적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와 연계가 긴밀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들은 공공시장 진입을 위하여 협의체 등을 형성하고 그 결과 산출된 영업이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지역사회 이윤환원은 주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되며 이는 대부분 쇠퇴문제, 소외·취약계층 문제, 장기실업 문제 등이 포함 된다. 현안문제 해결은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재

생의 핵심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에서 판로 확대 등을 위한 고용유지를 위하여 자연스럽게 지역과의 연계가 필요로 되며 사회적기업과 지역의 상호 필요관계에 따라 연계관계가 형성된다. 이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입장에서는 재생이 필요하나 공공이 해결하기 어려운 쇠퇴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이 가능해 진다.

이 연구는 경영학 관점, 사회복지학 관점이 아닌 도시계획이라는 공간적 관점에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이자,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를 연계한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도시재생의 최대 과제인 종합적 도시재생 실현과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핵심 이슈인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공헌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연계를 통해 동시에 해결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실증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적연구 뿐만 아니라 질적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생소한 방법인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을 위하여 경영공시에 참여한 81개의 기업 현황자료만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자료의 대표성 문제가 한계로 남는다. 또한, 경영공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분석의 내용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분야의 학술적 차원의 연구뿐만 아니라, 실용적 차원에서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현황자료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보다 발전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부족하나마 이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계량적 연구와 다양한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심도 있는 통합연구방법을 자유롭게 적용한 연구가 앞으로 활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도시재생,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통합연구방법,
근거이론, 다중회귀모형
학 번 : 2010-31006

차 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 5
1. 연구방법 ····· 5
2. 연구구성과 흐름 ····· 6

제2장 이론고찰 및 개념정립 ····· 8
제1절 관련이론 고찰 ····· 8
1. 사회적 경제 ····· 8
2. 발전경제학 ····· 10
3. 제품수명주기이론 ····· 11
4. 자원의존이론 ····· 12
5. 가치사슬이론 ····· 12
제2절 관련개념 검토 및 조작적 정의 ····· 14
1. 도시재생 ····· 14
2. 지속가능성 ····· 17
3.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목적 ····· 17
4. 개념의 조작적 정의 ····· 25

제3장 쇠퇴지역과 사회적기업 ····· 26
제1절 해외 도시재생정책 검토 ····· 26
1. 영국 커뮤니티 뉴딜 프로그램 ····· 26
2. 일본 지역재생법 ····· 2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29
1. 연도별 연구동향 ····· 29
2. 주제별 연구동향 ····· 34
제3절 쇠퇴지역과 사회적기업 ····· 42
1. 사회적기업 입지특성 ····· 42
2. 쇠퇴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 44
제4절 소결 : 연구질문과 분석방법 ····· 46
1. 연구질문 ····· 46
2. 분석방법 설계 ····· 47

제4장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 ····· 51
제1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설정 ····· 51
1. 양적연구를 위한 연구가설 설정 ····· 51
2. 연구모형 설정 ····· 54
제2절 자료수집 ····· 56
1. 활용자료 및 분석대상 ····· 56
2. 자료수집 내용 ····· 59
제3절 분석방법 ····· 62
제4절 분석결과 ····· 62
1. 사회적 목적 실현과 생산 및 판매와의 관계 ····· 62
2. 사회적 목적 실현수단 ····· 67

제5장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도시재생 ····· 68
제1절 분석방법 ····· 68
1. 근거이론과 패러다임 모형 ····· 68

2. 분석방법 적용의 적절성 ····· 68
3. 분석과정 ····· 69
제2절 자료수집 ····· 71
1. 분석대상 선정 ····· 71
2. 자료수집 ····· 76
제3절 지속가능성 요인과 지역사회 ····· 76
1. 지속가능성 요인 도출 ····· 76
2. 지속가능성 요인 간 관계 ····· 94
3. 사회적기업 성장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 98
제4절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도시재생 ····· 105

제6장 결론 ····· 11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16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향후 과제 ····· 119

참고문헌 ····· 121

표 차 례

<표 1-3> 2013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 2

<표 2-1> 도시재생의 개념 ····· 16
<표 2-2> 사회적기업의 정의 ····· 18
<표 2-3> 사회적기업의 목적 ····· 20
<표 2-4> 국가별 법률상의 사회적 목적 개념 ····· 22
<표 2-5> 취약계층 범위 ····· 22
<표 2-6> 사회서비스의 범위 ····· 23
<표 2-7>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 24
<표 2-8> 인증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양식 ····· 24

<표 3-1> 커뮤니티 뉴딜 프로그램 정책 목표 ····· 27
<표 3-2> 정부가 실시해야 하는 시책에 관한 기본방침 ·· 28
<표 3-3> 국내 「사회적기업 연구」 학술지 주제분석 ···· 30
<표 3-4> 해외 Social Enterprise Journal 주제분석 ····· 32
<표 3-5> 영리추구와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 선행연구 ·· 36
<표 3-6>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선행연구 ····· 39
<표 3-7>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관련 선행연구 ····· 42
<표 3-8> 통합연구방법 모형 분류 ····· 48

<표 4-1> 2013 경영공시 참여 81개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분야 ····· 58

<표 4-2> 2013 경영공시 참여 81개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유형 ····· 59
<표 4-3>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자료 구성 ····· 61

<표 5-1> 분석대상 기업 현황 ····· 74
<표 5-2> 분석대상 기업 세부현황 ····· 75
<표 5-3> 조사단계와 기간 ····· 76
<표 5-4> 성장기와 성숙기 기업 분류 ····· 99
<표 5-5> 성장기와 성숙기 기업 현황 비교 2 ····· 100
<표 5-6> 2013 경영공시 기업 해당지역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 구축현황 ····· 104
<표 5-7> ○○기업 취약계층 고용현황 ····· 107
<표 5-8> ○○기업 지속적 성장과정에서의
도시재생과의 연관성 ····· 115

그 림 차 례

<그림 1-2> 연구의 구성과 흐름 ····· 7

<그림 2-1> 사회적 경제 개념의 역사적 배경과 성장과정 9
<그림 2-2>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분류 ····· 10
<그림 2-3> 제품수명주기이론에 의한 성장단계 구분 ····· 11
<그림 2-4>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이론 개념(기업내부) ··· 13
<그림 2-5> 가치 시스템(기업외부) ····· 14
<그림 2-6>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의 범위와
실현수단 종합 ····· 24
<그림 2-7> 이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 ····· 25

<그림 3-1> SLEN 모델의 기본 틀 ····· 38
<그림 3-2> 사회적기업의 입지(쇠퇴지역(Wards)) ····· 43
<그림 3-3> 사회적기업의 입지 : 도시와 농촌의 비교 ····· 43
<그림 3-4> 사회적기업과 지역경제 선순환적 발전 ····· 45
<그림 3-5> 내재적 모형 활용 ····· 49
<그림 3-6> 분석과정 ····· 50

<그림 4-1> 가설 간 관계 ····· 54

<그림 5-1> Strauss and Corbin 패러다임 모형 ····· 71
<그림 5-2> 분석대상 구분 ····· 72

<그림 5-3>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 간 관계 ····· 97
<그림 5-4> 사례분석(예) : 성장기 기업 1 ····· 102
<그림 5-5> 사례분석(예) : 성장기 기업 2 ····· 102
<그림 5-6> 사례분석(예) : 성숙기 기업 1 ····· 102
<그림 5-7> 사례분석(예) : 성숙기 기업 2 ····· 102
<그림 5-8> 우리나라 쇠퇴지역 현황과 사회적기업 입지 106
<그림 5-9> ○○기업 서비스 제공지역 및
재생이 필요한 쇠퇴지역 ····· 108
<그림 5-10> 해당 기초지자체에서의 ○○기업
사업추진 실적 ····· 10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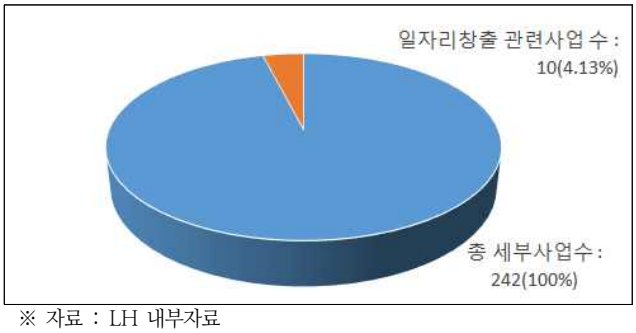
과거 쇠퇴한 지역을 재생시키는 유일무이한 수단은 전면 철거형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사람들의 수요는 다각화 되었다. 더 이상 전면철거 방식의 천편일률적인 대규모 정비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몰제가 적용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조합설립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설립된 조합도 해제하기를 원하는 지역이 최근 들어 급속도로 늘고 있다.

기존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가 나타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시재생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도시재생 개념은 학자마다, 국가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은 기존의 단편적이고 물리적인 정비방식과 구별되는 것으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도시재생을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물리적 재생은 쇠퇴해가고 있는 그 지역에 더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식을 말하며, 그 일환으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적 재생은 지역 실업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장기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확대방안이 가장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생은 교육과 훈련, 홍보 등을 통한 공동체와 주민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다.

최근 들어 관련분야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제기의 핵심은

대안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도시재생이 과연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재생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왔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첫째,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추진해 왔던 도시재생 역시 개발사업 위주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머무른 것은 아닌가하는 반성인 것이다. 둘째, 종합적 재생을 추진하고자 다른 분야 사업과 정책들을 연계하려고 하는 노력을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과거와는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 자료 : LH 내부자료

<표 1-3> 2013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사업수			사업비	
단위 사업수 (개)	세부 사업수(개) (%)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개) (%)	총사업비(백만원) (%)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비(백만원) (%)
138	242 (100.00%)	10 (4.13%)	213,230 (100.00%)	4,677 (2.19%)

*주(예시) : 공동작업장조성, 공방설립 및 운영, 전통주개발, 공예디자인 산업화
※ 자료 : LH내부자료

도시재생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던 영국에서도 물리적 도시재생 위주의 한계와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 중 커뮤니티 뉴딜(new deal for community)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커뮤니티 뉴딜 정책에서 물리적·경제적·환경적 재생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하고자한 노력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영국정부는 기존의 핵심 도시재생 정책이었던 씨티 챌린지(City Challenge Program), 이너씨티 테스크포스 프로그램(Inner

Cities Task Force Program)이 가지는 한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커뮤니티 뉴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기존 정책이 단편적으로 '공간'위주 또는 '사람'위주의 정책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커뮤니티 뉴딜 정책에서는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지 않고 사람('people-')과 공간('place-') 두 가지 모두를 도시재생의 주요정책 내용으로 포함하고자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정책은 사람과 공간 어느 하나에만 집중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될 때 도시재생 결과가 향상(improving outcomes)됨을 특히 강조한다(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0). 이 점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종합적 접근을 위하여 '공간'과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는 커뮤니티 뉴딜 프로그램의 정책목표(policy objectives)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교육(education), 건강(health), 실업(worklessness)은 사람과 관련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주택과 물리적 환경(housing and physical environment), 범죄와 커뮤니티 안전(crime and community safety)은 공간과 연계된 정책이다. 영국정부는 커뮤니티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사람'과 관련된 활동을 촉진하기도 하며, '사람'이라는 일종의 자원을 활용하여 '공간'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간'과 '사람'을 어떻게 연계하는가? 왜,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도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가? 사회적기업이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핵심적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람'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이며, '일자리'는 '공간'과 무관하지 않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이 '일자리'가 기존의 영리기업과 그리고 비영리기관과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지만 공공이나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공급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이러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특징

중 하나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이윤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목적 실현은 주로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이윤환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공간과 사람을 연계하는 효율적 도시재생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방식에서 벗어난 종합적 접근으로서의 도시재생 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도시 또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개발 이외에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재생에서 '공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함을 인식하였고 따라서 공간과 사람 모두를 도시재생의 주요 정책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가? 우리나라 도시재생에서는 '공간'과 사람, 특히 '일자리' 관련 정책은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보다 정확한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 측면의 비물리적 재생을 추진한 경험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진부처가 상이하여 실제적으로 이 둘을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하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과 '사람'간 연계를 통한 종합적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그 해결방안 중 하나가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해외에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회적기업을 공간적 관점에서 쇠퇴지역의 종합적 재생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공간'과 '사람(일자리)' 사이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의 중요성과 의의, 통합적 도시재생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서 사회적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재생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때 쇠퇴지역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합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때 지역과 어떠한 연계가 형성되고 도시재생으로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지 살펴보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 연구방법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관련이론 고찰과 이 연구와 관련한 주요개념 검토를 통하여 도시재생,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등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이론고찰을 통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는 관점, 주요 지속가능성 요인 도출, 요인 사이의 영향관계 등을 도출하였다.

둘째, 관련 해외도시정책 검토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연구질문을 도출하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석의 틀을 구축하였다. 영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분석을 통하여 왜 공간과 사람(일자리)가 연계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가와 이 둘 사이를 연계하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도시재생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 다음, 사회적기업이 쇠퇴지역 재생을 위하여 활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연구질문을 도출하였다.

셋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3년 경영공시에 참여한 81개 현황자료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업 개별 현황자료 구축이 필수적이나 이는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구득이 가능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영공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넷째, 2013년 경영공시에 참여한 81개 기업 중에서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인 간 영향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별기업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근거이론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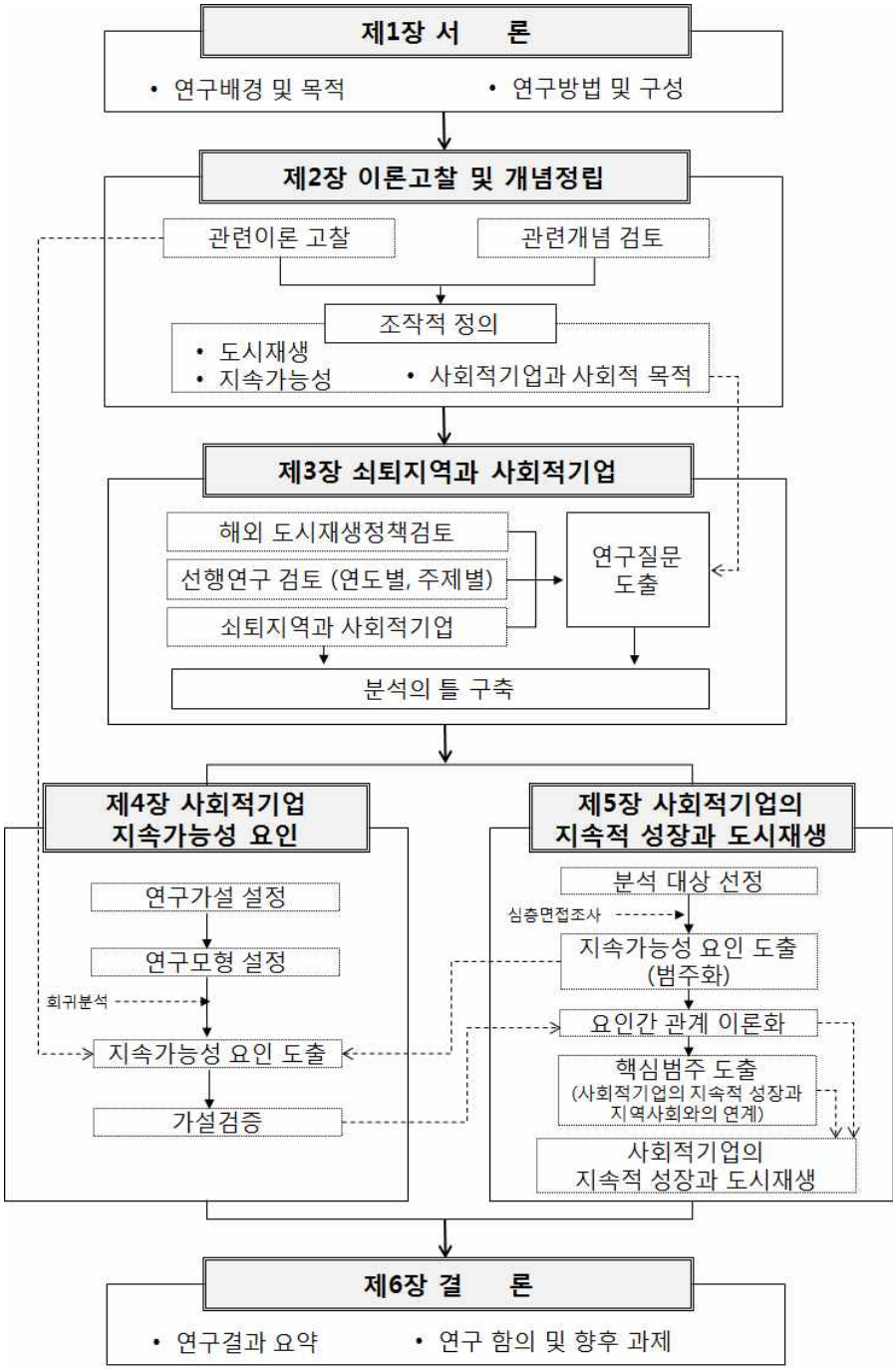
2. 연구구성과 흐름

이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사회적 경제, 가치사슬이론 등 관련이론 고찰과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등 관련개념 검토를 통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목적 등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관련 해외 도시재생정책과 국내외 선행연구검토를 통하여 연구질문을 도출하고 그에 적합한 분석의 틀을 구축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분석단계로 4장에서는 양적연구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을 도출하였고, 이와 동시에 5장에서는 질적연구 방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도시재생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함의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1-2〉의 연구의 구성과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 제4장의 양적연구와 제5장의 질적연구는 병렬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 도출을 위하여 관련이론 고찰 결과뿐만 아니라, 회귀분석이라는 양적연구 방법과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질적연구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의 병렬적 구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이론 검토결과를 이 연구에 적용하고, 질적연구 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주요 영향요인들을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영향요인들이 가지는 통계적 유의성과 영향정도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 양적연구 방법을 통하여 검증된 주요 요인 간 영향관계와 그 과정에서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이어서 양적연구 분석을 배치하였다.



<그림 1-2> 연구의 구성과 흐름

제2장 이론고찰 및 개념정립

제1절 관련이론 고찰

1.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역사적 기원은 16세기 유럽에서 각 국 도시(polis)의 성장과 함께 상공업자들이 조직한 길드(guild)로 볼 수 있다. 길드는 생산자 및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이후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이루는 기본 원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 이후 18세기 중반 방적기와 증기기관 발명을 통해 양모산업이 발전하고 이와 함께 시작된 봉건지주들의 인클로저 운동은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공장 대량생산 체제 하에서 위험을 느낀 노동자들이 우애조합(Friendly Society)을 결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길드에 이은 노동자들의 우애조합이 바로 유럽 협동조합의 효시라 할 수 있다(정관영, 2013: 195-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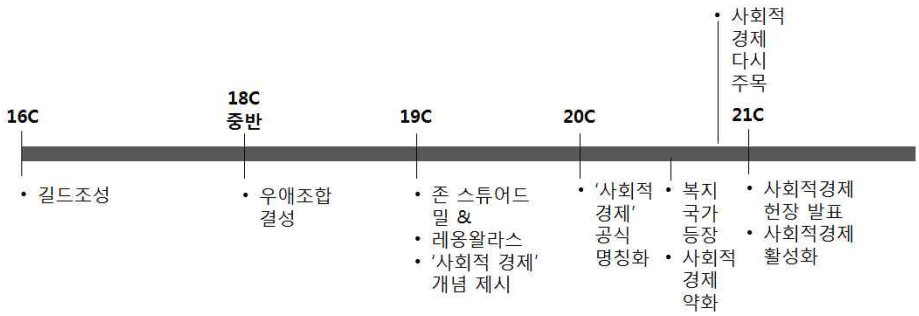
본격적인 협동조합 결성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사회주의 사상가 로버트 오웬(R.Owen)과 생시몽(C.H.Sanit'-Simon)이다. 오웬의 영향으로 전국노동조합연맹(Grand National Consolidated Trade Union)이 결성되었으며 생시몽의 영향으로 생산협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두 사상가들의 영향으로 노동자 조합이 결성되면서 협동조합 개념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정관영, 2013: 198-199).

그 후에 협동조합은 존 스튜어트 밀(J.S. Mill)과 레옹 왈라스(L. Walras)에 의해 19세기에 이르러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으로 그 틀을 갖추게 되었다(정관영, 2013: 200).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공식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1900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지드(Charles Gide)가 모든 사회적 경제 결사체들을 박람회에서 한 장소로 모아 놓은 것에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주목받게 된다. 이를 계기로 협동조합, 공제회 등은 자신들을

사회적 경제 주체로 지칭하게 되었다(주성수, 2010: 14~15).

사회적 경제라는 큰 틀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20세기 초부터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2차 대전 이후 복지 서비스 혜택이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결과 활동이 축소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일부 소비, 저축, 농업 등의 분야에서만 활동을 해 오다 1970년대 말 이후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하였다(주성수, 2010: 15~16). 이는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즉, 국가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안적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에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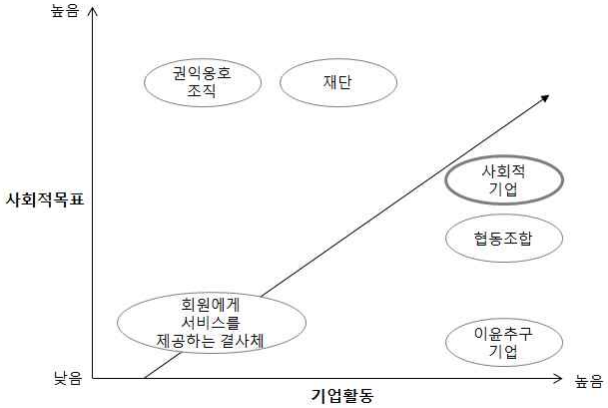
2002년 유럽 국가들은 브뤼셀에서 '사회적 경제 헌장(Social Economy Charter)'을 발표하였다. 이 헌장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에는 협동조합(cooperatives), 상호공제조합(mutual societies), 결사체(association)와 재단(foundations)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경제 조직체들은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 건강(health), 금융(banking), 보험(insurance), 주택(housing), 사회 통합(social integration) 등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다. 사회적 경제는 양질의 일자리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사회 통합과 지역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주목할 점이다.[1)]



<그림 2-1> 사회적 경제 개념의 역사적 배경과 성장과정

1) 자료 : Social Economy Charter(http://www.socialeconomy.eu.org)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국가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 조직은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체들은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적 목표)과 기업활동(영리추구)이라는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의 두 가지 목적에 따라 〈그림 2-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자료 : 정관영, 2013. 이제는 사회적경제다. p.191에서 재인용

<그림 2-2>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분류

2. 발전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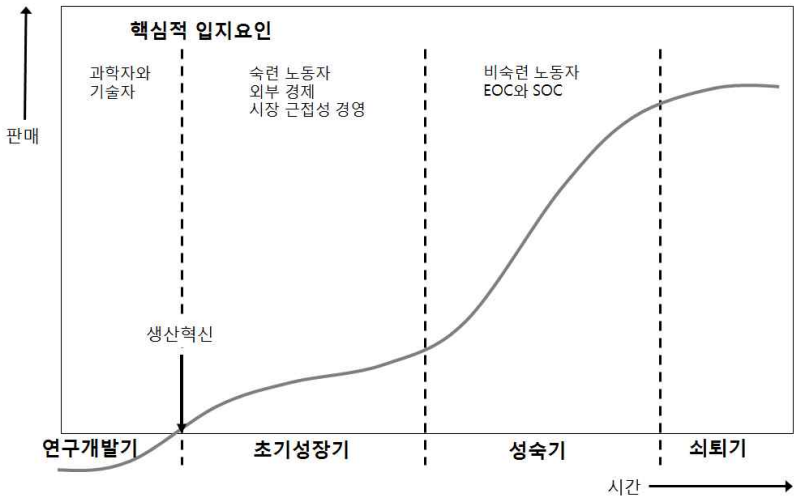
발전경제학은 전통경제학을 저개발국 경제발전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개념이다(김대환, 1998). 발전경제학에서는 자본형성이 경제발전에 있어 유일한 요소는 아니며 오히려 자본 그 자체 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본이 조달되고 투자가 배분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발전경제학의 핵심은 저개발 국가 농업부문 잉여노동이 근대적인 공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그리는 경제발전 모델에 있다. 전통부문에 한계생산성이 “0”인 잉여노동이 존재하고 이 외부의 잉여노동이 외부 원조와 기술이전을 통하여 근대부문으로 이동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저개발 국가경제 전체가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발전경제학에 따르면 전통부문 자본이 형성되고 잉여노동이 근대부문으로 이동이 일어난다. 이것은 외자도입과 외부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술이 이

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저개발 국가는 자립경제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기술이전과 교육 등을 통하여 노동의 자본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외자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미비된 국내설비 또는 기술로 인하여 활용되지 못하던 유휴 투자재원을 외자도입을 통하여 활성화할 경우 국내자원에 대한 보완적 기능까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 제품수명주기이론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은 버논(Vernon, 1966)과 허쉬(Hirsh, 1967)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공업생산은 연구개발, 새로운 상품 개발, 성장, 성숙 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되고 이 제품수명 단계에 따라 공간적 특성이 달라진다(박삼옥 2002). 기업의 성장단계는 곧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명주기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기, 초기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는 제품의 수명주기를 기업의 성장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자료 : 박삼옥, 2002. 현대경제지리학, p.208에서 재인용

<그림 2-3> 제품수명주기이론에 의한 성장단계 구분

4. 자원의존이론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은 기업은 스스로 필요시설을 모두 완비할 수 없으며(self-contained) 자급자족(self-sufficient)할 수 없음(Pfeffer, 1978: 43)을 대전제로 한다. 그 결과 기업은 태생적으로 주변 자원에 의존하며 서로 연계해 나가는 전략적 행동을 취하게 된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원, 즉 교환의 대상에는 금전적, 물리적 자원, 정보, 또는 사회적 정당성 등이 포함된다(Pfeffer, 1978: 43). 이 이론에서는 기업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곽주영 외, 2011: 82).

기업은 생존 대응전략으로 자원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찾아가며 생존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부활동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고자 한다(오단이, 2013: 274). 하나의 기업이 모든 자원을 완벽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전략적 선택에 의해 자원을 교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외부에의 의존이 강해질 경우 기업은 존립(survive)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딜레마에 놓이기도 한다.

기업은 외부 자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의 특정한 자원에 대해 특정 대상에게만 의존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 놓일 경우 기업의 구조 또는 목적을 일부 수정해 가며 조정해야 한다(Pfeffer, 1978: 109). 기업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연계는 필수적이지만 외부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있어 곧 외부의 조정(external control)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5. 가치사슬이론

M. Porter(1985)에 의하면 가치사슬(value chain)은 기업의 전략적 단위 활동을 구분하고 각 기업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경쟁기업과 차별화(김길선 외, 2003)하여 경쟁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가치사슬이론(value chain theory)에서는 기업활동을 기술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으로 구분하며 이를 “가치활동(value activities)”이라 칭한다(마이클 포터, 2001: 99).

기업의 가치활동은 주요활동과 지원활동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는 다시 〈그림 2-4〉에서와 같이 9개 단위활동으로 구분된다.

자료 : Michael E. Porter and Mark R. Kramer, 2006.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그림 2-4>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이론 개념(기업내부)

가치사슬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주요활동이란 5개로 구분되는 상품의 물리적인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활동이다. 지원활동이란, 제조와 생산, 마케팅과 영업과 같은 주요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술, 인력, 다양한 기업의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즉, 지원활동에 해당하는 조달, 기술개발, 인력 등은 특정한 하나의 주요활동과 각각 연계된다. 반면, 기업의 하부구조는 특정한 주요활동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Porter, 1998: 38-42).

각각의 기업 활동들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으로 사슬을 이루어 전체적인 가치(value)를 창출시킨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즉, 기업이 하나의 활동을 수행할 경우 다른 활동을 위한 비용과 효율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계(linkage)가 일어난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이러한 간단한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가치활동 사이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이론이다.

연계는 기업 내 가치 활동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공급자, 유통업자, 구매자 등 기업의 외부 주체간 가치사슬 사이에서도 형성된다. 즉, 기업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전략적 연계를 통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기업들은 기업의 활동의 폭이라 할 수 있는 경쟁 범위[2]에서 차이를 보이며 경쟁범위는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는 경쟁범위가 넓을수록 지역, 관련산업 등 가치사슬 사이의 상호관계를 보다 전략적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3]

자료 : 마이클 포터 지음, 2001. 전략경영의 대가 마이클 포터의 경쟁론, 김경묵·김연성 공역, 세종연구원. p.101

<그림 2-5> 가치 시스템(기업외부)

제2절 관련개념 검토 및 조작적 정의

1. 도시재생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학자마다 다르다. 가장먼저, 우리나라의 경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항①에 의하면 도시재생이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그리고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영국에서 발행된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2004)」에 의하면 도시재생은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 개선을 통하여 도

2) 경쟁 범위는 세분화 범위, 수직적 범위(수직적 통합 정도), 지리적 범위, 산업 범위(연관산업 범위)로 구분된다(마이클 포터, 2001: 102).

3) 예를 들면, 두 개의 사업단위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같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여러 사업단위가 부품을 공동조달하기 위하여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반면, 협소한 범위의 경쟁우위의 경우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된 가치사슬을 형성할 경우 획득가능하다(마이클 포터, 2001: 102).

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비전과 활동의 총체이다. 경제적, 물리적·환경적, 사회적 재생은 세부적인 도시재생 핵심 주제로 경제적 재생, 물리적·환경적 재생, 사회와 커뮤니티 문제, 고용, 훈련과 교육, 주택 등으로 세분화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재생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신규 경제활동이 창출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노력과 고용·교육 및 훈련이 포함된다. 가장 강조되는 것은 후자이다. 즉, 도시 쇠퇴(decline)문제와 함께 발생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업, 즉, 일자리 문제이며 그 이유는 도시에서의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할 뿐만 아니라 문제구조가 복합적이어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4)]

이 때문에 커뮤니티 재생계획에서 실업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일부 성공적인 도시 프로그램에서는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히 실직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를 상대적으로 부유한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보다 도시 중심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물리적·환경적 재생이다.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제약요소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의 물리적 재생은 환경적 재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개선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에 개발하고자 하는 잠재적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질의 주택(decent housing)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주택은 단순 거주 개념을 넘어 쾌적성과 다양한 기회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를 통해 신규 투자도 창출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셋째, 사회적 재생이다. 이는 지역이 가지는 특별한 수요(needs) 및 특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수요와 지역의 문제에 밀접히 연계되어 있을수록 재생

4) 도시지역에서의 실업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고 첨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장기실업(disadvantaged long-term unemployed people) 비율이 높다. 둘째, 도시지역의 비인간적 환경(impersonal nature) 때문에 개인에게 잘 맞는 직업을 찾기 어렵다(more complex). 셋째, 취약계층의 쉼터와 시설이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넷째, 향후 잠재적인 고용자로서 소통에 문제가 있는 소수민족 집단들이 집중되어 있다. 다섯째, 상기 요인들의 조합에 의한 부정적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Peter Roberts and Hugh Sykes, 2000).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파트너십 모델을 형성하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 전체로 이익이 전해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 기관이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참여를 촉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때문이다.

<표 2-1> 도시재생의 개념

경제적 재생	물리적·환경적 재생	사회적 재생
·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회 제공 · 신규 인프라 제공 · 일자리 창출 (특히, 취약계층)	· 쇠퇴된 거주 및 기업 환경 개선(불량 환경 개선) · 양질의 주택제공 (투자를 방해하는 불량주택 제거) · 주택과 건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회통합과 연계	·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 등

자료 : Peter Roberts and Hugh Sykes, 2000.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SAGE Publications Ltd

세 번째로, 장윤배(2009) 연구에 의하면 선진국 도시재생은 환경적 재생,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의 순서로 세 단계를 밟아 발전한다. 환경적 재개발은 재생의 초기단계에 일어나며 불량주택을 제거하는 물리적 재개발을 말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재개발은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참여를 통하여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 등 특성을 살려나가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재개발은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개발과 교통환경 등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는 개발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海道淸信(2003)은 도시재생을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쇠퇴한 기성시가지를 새로운 정책과 계획을 통하여 보전·회복·개발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커뮤니티·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성시가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海道淸信의 정의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특히,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의 통합적 지속가능성이 가장 강조된다(양재섭, 2006: 93).

2.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에 의하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현재 세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된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그리고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되고 이러한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관련법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지만, 사실 이 두 개념의 핵심은 기존에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 왔으나 이러한 적대적 대상이 아닌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추구해야 하는 구성요소라는 점이다.

3.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목적

1) 사회적기업의 정의

유럽에서 사회적기업 개념은 1990년경 공공과 영리기업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회적 수요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Jacques Defourny and Marthe Nyssens, 2010: 2). 이탈리아에서는 1980년대에 등장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유럽의 사회적기업연구네트워크(EMergence des Enterprises Sociales en Europe, 이하 EMES)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European Commission의 재정지원을 받아 유럽 15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심층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 것이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사회적기업 개념에 대한 많은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개념은 없으며 여건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관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임금창출 관점(earned income school)이다. 대표적 학자인 Defourny와 Nyssens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수익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보고, 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원 부족에 대한 대안적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리스크는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된 임금의 배분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두 번째는 사회혁신 관점(social innovation school)이며 Dees가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이 학파는 사회적인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여 생겨난 사회적기업의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강조한다. 사회적기업 활동을 통해 창출된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활동들을 눈에 보이는 임금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두 가지의 기본적인 관점 하에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사회적기업을 정의하고 육성·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OECD는 국제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규범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진화단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OECD는 사회적기업은 나라마다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달해 왔으며 사회적 경제가 발전한 유럽에서 특히 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 외에도 〈표 2-2〉에서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가 존재한다.

<표 2-2> 사회적기업의 정의

연구자/기관	정의
EMES· Jacques Defourny	· 사회적 목적을 갖는 영리적 비즈니스 단위 · 커뮤니티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영리 민간 기업
OECD	·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

연구자/기관	정의
Social Enterprise Alliance(UK)[5]	· 공공의 선(common good)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환경적 그리고 인간정의(human justice) 아젠다를 비즈니스적 수단을 통해 실현
U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2002)[6]	· 사회적목적(social objectives)을 우선적으로 실현하는 기업 · 이윤은 소유주들을 위한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기업자체 또는 커뮤니티를 위하여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업
Monica C. Diochon(2010)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가정신이 구현되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관
Social Enterprise London	·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비즈니스적 방법을 활용하는 기업 · 명확한 사회적·환경적 목표를 관리문서에 명기하고, 임금 대부분을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하며,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하고, 경영의 자율권을 가지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표로 하며, 책임있고 투명한 기업
John Pearce(2003)	· 사회적 목적을 가진 영리기업으로 이윤분배 제한, 민주적이며 책임 있고 공동 소유권 구조를 가지는 기업
Janelle A. Kerlin(2010)	· 수입창출을 통한 자선활동[7]을 하는 기업
Giulia Galera & Carlo Borzaga(2009)	· 사회적목적 추구 · 비영리의 분배 제한 · 투자자가 아닌 이해관계자에게 소유권과 관리권한 부여
임혁백(2007)	· 비이윤 추구적인 공익을 추구하는 공적인 경제를 운영하는 기업
장원봉(2005)	· 경제적 이해를 추구하는 기업 성격과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여 사회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 성격을 모두 가진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제2조제1호)

5) 자료 : https://www.se-alliance.org
6) 자료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2. Social Enterprise-a strategy for success, p.13
7) 한 지역에서 통용되는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다른 지역에 도입되어, 그러한 개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또는 기존의 조직을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보듯이,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해당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맞게 수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그 지역 고유의 모델이 형성된다. 구체적인 사회적기업 활동 또한 새로운 환경에 도입되어 그 환경에 맞게 개발되어 왔다.

2) 사회적 목적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을 창출(경제적 목적)하는 기업으로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duality)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이론에 의하면, 상충되는 두 가지 개념의 동시실현이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경영상의 한계이자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Michael E. Porter and Mark R. Kramer, 2006).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자 경영상의 최대 난제인 사회적 목적 실현이 사회적기업의 생존을 위한 경쟁우위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8)]

연구자별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복지 차원에서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EMES는 이 외에도 지역사회 이익추구와 이익의 지역사회 이윤환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런던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London)은 기금 및 기부, 자선 및 자원봉사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EMES에서 정의하는 지역사회 이윤환원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표 2-3> 사회적기업의 목적

연구자/기관	경제적목적(profit)	사회적목적(social purpose/goal)
EMES	· 재화/서비스 생산 및 판매 · 경영상 리스크 동반 · 경영의 자율성 · 최소한의 유급노동기준 제시	· 취약계층 고용창출 · 사회복지 서비스지원 · 지역사회 이익추구 · 이익의 사회적 환원
OECD	· 재화/서비스 생산 및 판매	· 서비스 제공 · 사회적 통합(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동통합) · 시민사회 발전(취약계층 그룹 지원을 통한 시민사회 발전: 적극적인 시민

8) OECD(2006)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은 실업자·여성·사회적 열위계층 등을 참여시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local development)을 수행하면서 시장의 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새로운 고용창출 문제를 다루는 기업이다. 따라서, 공간적 측면, 특히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기관	경제적목적(profit)	사회적목적(social purpose/goal)
		참여 기회제공, 파트너십으로의 발전)
Jacques Defourny·Nyssen	· 지속적인 제품과 서비스 생산활동	· 특정 그룹을 대상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개발
Social Enterprise London	· 판매를 통한 기업수입	· 기금 및 기부 · 자선 및 자원봉사
U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9]	·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 기업가적 혁신성과 리스크 감내 행동 · 유연성과 적응성 · 이해관계자 참여 ·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관리 · 제품과 서비스 판매를 통한 수익을 통해 재정적 자립성 확보	·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선을 이행 · 소비자와 커뮤니티 중심
John Pearce	· 상품과 서비스 판매 · 공공, 민간, 재단 등의 기부 · 국가보조금 · 자원봉사인력 · 기금 모금	· 장애인을 위한 훈련 및 일자리 제공 · 장기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커뮤니티에 맞는 특별한 서비스 제공 · 공공거래 제품 판매
임혁백	· 일반기업과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일자리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가사 서비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중 하수폐기물처리, 공공장소 청소, 개인간병인 서비스, 사업서비스업 중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서비스 등)

국가별로 관련법에서 규명하는 사회적 목적에도 차이점이 발견된다. 사회적기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한정하고 있다. 핀란드는 장애인과 장기 실업자로 한정되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한정한다. 영국은 광의의 접근으로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두 사회적 목적으로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9) 자료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2. Social Enterprise-a strategy for success, p.13

<표 2-4> 국가별 법률상의 사회적 목적 개념

국가	법률	사회적 목적 개념
Italy	Law No. 118 of June 13, 2005	· 사회, 건강, 교육, 훈련, 환경보호, 사회적 여행, 문화 관련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동통합(work integration)
Finland	Law No.1351/2003	· 전체 고용의 최소 30%는 장애인과 장기 실업자 고용 의무
UK	Community Interest Company Regulation 2005	· 커뮤니티 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Korea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 서비스 등)제공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자료 : Giulia Galera and Carlo Borzaga, 2009. "Social Enterprise, an international overview of its conceptual evolution and legal implementation", *Social Enterprise Journal*, Vol.5 No3. p.224. Table II 일부내용 발췌보완

3) 사회적 목적 실현 수단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다. 취약계층 대상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나 장기 실업자와 장애인은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 발달한 유럽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2-5〉 참고).

<표 2-5> 취약계층 범위

취약계층	대상자	
오스트리아	· 장기 실업자 · 장애인 · 은퇴자 · 약물중독자	· 이주자 · 사회복지대상자 · 전과자 등
벨기에	· 청년 · 여성 · 저학력자	· 밀입국/망명자 · 약물중독 또는 정신질환자 등
핀란드	· 장기 실업자 · 청년실업자	· 장애인
이탈리아	· 고령자 · 장애인 · 약물중독자	· 실업자 · 노숙인 · 이민자 등
우리나라	· 저소득자 · 고령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대상자

취약계층	대상자	
	· 장애인	· 결혼이민자
	· 성매매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 청년	· 갱생보호대상자
	· 경력단절 여성	·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자료 : WISE, National Cross Cutting Reports 2007~2013 내용을 토대로 정리(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사회적기업육성법(우리나라)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이다.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역시 국가별 차이는 존재하나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복지, 건강, 교육, 문화, 환경 관련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6〉과 같다.

<표 2-6> 사회서비스의 범위

사회서비스	관련법/년도	범위
이탈리아	381/1991	· 복지, 건강, 교육, 훈련, 환경보호, 문화유산 발전, 사회적 여행(공정여행), 문화서비스 관련 연구활동 등
스페인	National Law 27/1999 and regional laws in 12 autonomous regions/1993-2003	· 건강, 교육, 문화, 기타 사회환경 관련 활동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육성법/2012	· 보육,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및 관리, 간병 및 자사 지원,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고용 서비스 등

자료 : Jacques Defourny and Marthe Nyssens, 2008. "Social enterprise in Europe: recent trends and developments", *Social Enterprise Journal,* Vol.4.No3.(이탈리아), Giulia Galera and Carlo Borzaga , 2009. "Social enterprise, an international overview of its conceptual evolution and legal implementation". *Social Enterprise Journal* 내용을 토대로 정리(스페인), 사회적기업육성법(우리나라)

마지막은 지역사회 이윤환원이다. 해외사례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발생한 이윤이 기업이 아닌 지역사회 또는 근로자 등에게 재투자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미래 기업발전에 대한 투자와 동시에 지역 인력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인 교육 및 훈련을 가장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에 재능 및 인력기부, 현금 및 현물 기부 등이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에서 이윤의 사회적 목적 투자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광의의 지역투자 차원에서 기업설비 재투자까지를 모두 사회적 목적 투자로 포함한다(〈표 2-7〉, 〈표 2-8〉 참고).

<표 2-7>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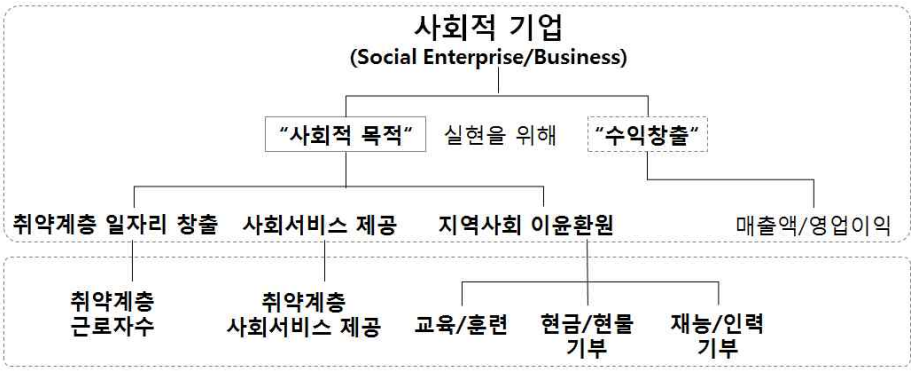
구분	범위 예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지역사회 환원 · 설비재투자·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인력 고용 · 취약계층 봉급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강화) ·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 허용)
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지역사회공헌형)	· 해당지역 취약계층 급여인상 등 복지 강화 · 지역 취약계층 추가고용 · 지역사회에 저가 서비스 제공 · 기부금장학금 제공 등

자료 : 고용노동부, 2014.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업무매뉴얼)

<표 2-8> 인증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양식

구분	범위 예시
수익 배분현황	· 자체 적립금 · 구성원 성과급 · 부채상환 · 기부/지역사회 재투자 · 미배분 · 총액
교육훈련	· 근로자교육훈련(인, 원)
지역공헌	· 지역 자원 활용(인적/물적자원) · 지역주민 소득/일자리 증대

자료 : 고용노동부, 2014.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업무매뉴얼)



<그림 2-6>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의 범위와 실현수단 종합

4. 개념의 조작적 정의

앞서 살펴 본 관련 선행연구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도시재생'은 쇠퇴지역의 물리적·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위한 종합적 활동을 말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하는 기업 형태를 말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란, 기업의 경제적 수익창출과 사회적 목적 실현 사이에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 즉,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이란, 기업생존을 위하여 최대한의 수익성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기업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목적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목적'은 사회적기업의 주된 기업목표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이윤환원으로 한정 한다.[10] 여기서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란,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그 밖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말하며,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이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복지, 건강 등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이윤환원이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현금 또는 현물로 기부하거나 향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적립, 성과급 지급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림 2-7> 이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

10) 사회적목적 실현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인증 매뉴얼' 등에서 제공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자료의 구득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업공시 자료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현황조사 목록을 참고하여 세 가지 수단으로 최종적으로 구분하였다.

제3장 쇠퇴지역과 사회적기업

제1절 해외 도시재생정책 검토

1. 영국 커뮤니티 뉴딜 프로그램(New Deal for Community)

영국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주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가장 먼저 도시개발공사(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는 주로 물리적인 재개발(physical redevelopment)을 추진해 왔고 이너씨티 태스크포스(Inner City Task Forces)는 경제, 고용, 그리고 교육활동에 대해 초점을 맞춘 재생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그동안의 재생관련 정책들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이를 종합할 수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area-based) 통합적 정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1998년 영국 총리실 산하에 조직된 사회적 배제 유닛(Social Exclusion Unit(SEU)의 근린지역 재생을 위한 국가전략수립 보고서(National Strategy for Neighborhood Renewal)에서 쇠퇴지역 문제는 복잡·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결방식이 융복합적 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SEU, 2001). 복합적 대응 관점에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커뮤니티 뉴딜 프로그램은 통합적인 접근을 가장 강조한다. 기존의 정책들이 '사람' 중심 또는 '공간' 중심 등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왔으나 커뮤니티 뉴딜 프로그램은 이와 차별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강력한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

커뮤니티 뉴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정책목표 중 '사람'과 관련하여서는 범죄와 커뮤니티 안전, 주택과 물리적 환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간'과 관련하여서는 교육, 건강, 그리고 실업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 커뮤니티 뉴딜 프로그램 정책 목표

구분	목표	내용
place-	범죄와 커뮤니티 안전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포함되었으며 커뮤니티는 다양한 의미를 가짐(경우에 따라 소수인종 커뮤니티, 또는 더 넓은 의미의 공간적 범위를 포함하기 함)
	주택과 물리적 환경	주택과 근린주구 관리, 커뮤니티 단위소규모 환경증진 노력 등
people-	교육	초등학교, 중등학교 연구, 통학패턴 연구 등
	건강	공공보건, 근린주구 단위에서의 예방노력
	실업	광범위한 실업에 대한 종사자간 연계와 전략, 근린주구 단위에서의 적합한 실업자 또는 구직자 지원

자료 : Social Exclusion Unit, 2001.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Policy Action Team Audit, p.6 재구성

2. 일본 지역재생법

일본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4개의 개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가장 먼저 제정되었고 그 이후,「구조개혁특별구역법」,「지역재생법」,「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한 법률」순으로 제정되었다. 4개의 법은 각각 도시재생을 다루고 있지만 구체적 제정목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 중장기적 도시전략 마련과 공유에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도시재생 관련법들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의 경우는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재생법」은 지역자원 이용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자주·자립적 지역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 범위를 중심시가지에 한정하여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지역재생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지역이 자주적이면서 자립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고용창출 및 촉진은 노동법적인 한정된 접근만을 통해서는 한

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제 속에서 지역고용을 창출하고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전윤구, 2008: 84). 각 법마다 '기본방침'을 두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역재생기본방침'에서는 지역재생기본계획 인정제도를 두고 있고 이 인정제도에 근거하는 교부금 활용 등 법률상의 특례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지역재생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정부가 실시해야 하는 기본시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이 중에서 특히, '지역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면, 지역자원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 커뮤니티 비즈니스 진흥, 지역 장단점을 살린 기업입지 촉진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역시 도시재생의 한 분야로 경제 활성화,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이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간과 사람을 연계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정부가 실시해야 하는 시책에 관한 기본방침

지역재생을 위한 사람만들기·인재네트워크 만들기	지역 고유의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 및 활용 활성화
지역 지식 거점 재생 프로그램	지역간 지혜와 아이디어 경쟁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대학 활용 활성화
지역 고용재생 프로그램	지역 인재 육성·고용창출을 위한 부처간 연계 협력
지역 연결재생 프로그램	지역 주민, 민간기업, NPO, 사회기업가 등 연계를 통한 사회적자본 창출
지역 재도전 추진 프로그램	개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캐리어 교육, 자립지원
지역의 교류·연계추진 프로그램	지역 교류 및 연계 등을 통한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관광지 등 조성 활성화
지역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기업입지 촉진, 중소기업 재생, 투자촉진 등을 위한 전략
지역 지구온난화 대책추진 프로그램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온난화 대책 마련
권한이양, 사회실험 등 대처방안 추진 프로그램	각 관련 분야 권한이양, 선진적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실험 적극지원

자료 : 지역재생기본방침(2012년 1월 27일 일부개정)

법률과 기본방침에서 지역 고용기회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제공한다. 지역재생기본방침에 따라 이러한 특례조치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지역 고용기회 창출 및 기타 지역재생에 기여하는 경제·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둘째,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자들을 위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 셋째,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고용방법 개선, 고용형태 등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특정비영리법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연도별 연구동향

1) 사회적기업 연구(국내)

국내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학술지인 「사회적기업 연구」에 2008년~2014년까지 게재된 총 51편 학술논문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6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는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과 인증 성과분석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대부분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이다. 이를 제외하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인요양 서비스 등 복지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과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구체적 개념과 이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임을 고려할 때, 이는 해외에서의 연구동향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적 목적'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 수단을 분석하는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에서 통용되는 명확한 사회적기업 개념정립과 이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수단 개념을 정립하는 연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현황자료 분석,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하는 실증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기업개별 현황자료 구득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개별 현황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제공되는 성과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전국 또는 지역평균 현황만을 참고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황과 기업이 가지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실질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표 3-3> 국내「사회적기업 연구」학술지 주제분석

년도	개념/특성	사회적 목적	수익창출/경영	정책	기업가정신	성과	기타
2008		· 사회적일자리/고용창출/인적자원개발 · 자활공동체/사회적기업으로발전가능성	· 사회서비스/비영리조직/이용자만족도 · 이해관계자인식 · 사회적기업/일반인대상인식조사	· 사회적일자리사업/정책제언 · 사회적기업육성/중장기정책방향	· 사회화/기업화/기업가정신	· 인증결과/과제 · BSC모형개발	
2009		· 노인요양서비스/사회적일자리창출	· Fair TradE · 사회적기업/일반인인식조사	· 행·재정지원제도/전략적마케팅 · 인증제도/개선방안	· 기업가정신/이론고찰	· 2007인증기업성과분석	· 사회적증권거래소
2010	· 모델/배경 · 국제비교		· 생태적소비촉진/기업환경경영시스템응용가능성 · 기업사회적책임/혁신역량및성과영향	· 정책도구/전략적선택과조합 · 기업사회공헌/사회적기업설립 지원 · 성장전략/민관협력/제도개선 · 세제지원정책 · 육성/역량/전망	·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활성화	· 2008사회적기업인증분석	· 자본시장 · 재해리스크관리/사회적자본역할
2011	· 한국육성모델/국제비교	· 사회적연대/취약계층참여구조 · 청년/경제적자립/사회적기업역할	· 자본주의4.0시대/사회적기업과경영학 · 경남/사회적기업운영 및생태계	· 지방정부 공공자원연계 · 정부 지원 체계 개선 · 관련법제 비교 · 민간기금조성/금융지원활성화		· 인증결과 분석	
2012				·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사회적기업			
2013	· 사회변화,개념재정립		· 기업의사회적책임/국내정착방안				· 기술기반사회적기업기술혁신
2014			· 학교기업활동/이해관계자반응/	· '사회적기업생태계' · Public Private Partnerships		· 조직구성원심리적자본/성과	

2) Social Enterprise Journal(해외)

해외에서의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 동향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하여 「Social Enterprise Journal」에 등재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1편의 논문 주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외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연구는 국내에서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폭넓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 연구동향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사회적 목적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학술지 발간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학술지 발간이 시작된 해는 2005년으로 우리나라 보다 3년 앞선다. 사회적기업 개념의 모호성, 이슈, 가치창출 등 주제에 대해서는 저널 발행 당시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개념과 특성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와 지속가능성 또는 생존가능성, 성장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사회적기업가 관련 연구 아젠다 발굴 연구를 시작으로 사회적기업가 마인드, 사회영향, 영리추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세부주제를 다루는 연구가 발행 초기부터 최근까지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가의 마인드에 따라 사회적 목적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 다시 말해 영리추구와의 관계 설정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고 또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도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발전, 재생과 사회적기업을 연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그에 반해, 해외에서는 커뮤니티에 기반 한 사회적기업가, 지역화된 제3부문(localized third sector)으로서의 사회적기업과 이를 통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주제가 소개되고 있다.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데 여기에서도 단순한 연계 및 협력 방안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계와 협력 등 공간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 있다.

<표 3-4> 해외 Social Enterprise Journal 주제분석

년도	개념/특성	지속 가능성	사회적목적/ 사회서비스	수익창출/ 경영	공공지원/ 제도	기업가정신	환경관리	지역재생/ 발전	네트워크/ 거버넌스	공정무역	성과
2005		· 사회적기업 생존가능성		· 소비자관점에서의 사회적기업		· 연구 아젠다 발굴		· 커뮤니티에 기반한 사회적기업가의 지속가능성 의미			· SROI 분석 · BSC 활용 (영국)
2006	· 개념이해 · 개념의 모호성과 복합성	· 지속가능한 투자 · 신생기업 육성 · 능력배양		· 비즈니스 훈련 · 자기자본 조달			· green work				
2007		· 지속가능한 투자	· 인적자본 관리툴 · voluntary sector · 보육부문	· 음악기반 사회적기업 경제활동	· 공공부분 지원				· 협력을 위한 법적 구조		· Balance 방법 · SROI방법
2008	· 개념화 · 실패와 모호성 · 파라독스 · 유럽의 최근경향		· 법적지원 · 사회적가치 창출	· 비즈니스 플래닝 훈련 · 사회회계 · 예술관련 기업 · 참여모델 통한 혁신		· 사회적기업가 정신 현황 · 세네갈 사회적기업 정신 · 사회적 정책 커리큘럼	· 사회적기업과 재생에너지			· 공정무역 조직 등	
2009	· 효율성과 프로세스 유형 · 사회적기업 지도화 · 사회적기업 도전	· 사회적기업 성장(이슈, 도전)	· 자율성과 책임/사회적서비스 (일본,영국) · NGO와 협동(폴란드)	· 협동적 사회적기업 (규칙, 재정, 관리 등)	· 영국 사회적기업연대 관련 정책적 관점	· 헬스케어 부문 기업			· 효율성, 연계		· 사회적 영향 측정
2010	· 윤리적 자산의 개념 · 기업 도면화 (mapping)		· 홈리스 분야 기업 모델 · 비영리 기관과 정부부문			· 기업가적 mindset · 사회적경제 트러스트, 사회적 기업가정신		· 지역화된 제3부문의 도시재생	· 공동체적 거버넌스 · 거버넌스와 기업가 정신 · 쇠퇴지역 협동조합 · 이슈	· 거버넌스와 공정무역	

년도	개념/특성	지속 가능성	사회적목적/ 사회서비스	수익창출/ 경영	공공지원/ 제도	기업가정신	환경관리	지역재생/ 발전	네트워크/ 거버넌스	공정무역	성과
2011	· 책임 · 유사성, 다양성 · 이슈, 핵심적 도전 · 역사, 다양성 · 국가비교			· 다양한 이해관계자 /resource mix	· 제도적 프레임웍	· 사회 영향 · 연구 역사 · 영리추구와의 관계		· 지역과 농촌형 사회적기업 · Big Society 영향			· 사회적변화 (성과측정) · 성과측정 (기술, 프로그램)
2012	· 누구나 참여 가능한 기업 · 가치창출과 핵심 사안 · 동기부여 · 이론의 중요성	· 생존능력 · 경영적 합리성 · 성장을 위한 전략		· 평가 (taking stock) · 자금조달 (bricolage)	· 사회적 기업 인증	· 사회적/환경적 기업가정신 · 근본적 법률 제정, 사회적기업가 정신		· 방글라데시 Rural Sales Program			
2013	· 개념 모호성, 가치창출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 고령자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 발전 아젠다	· 노동시장 평가 (WISEs)			· 도전성, 적합성 · 매니저의 경쟁력과 특화			· 합법성, 협동, 연대 · 거버넌스	· 공공조달의의 · 거버넌스 · premium · 정치적 역동성 · 성별영향 · 규정준수, 책임	· SROI분석
2014			· 사회적 목적 실행과 거버넌스			· 사회적기업가의 동기 (motivation)			· 합법성 추구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 거버넌스 모델(한국)		

2. 주제별 연구동향

1) 사회적기업 특성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특성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수익 창출이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영리기업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해 왔으며 비영리기관은 반대로 사회적 목적 실현만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다. 기업의 설립목표에서 명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만이 가지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특성과 이것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전략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Stephen Ko(2012)의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생존능력(viability)과 유출효과(spillover effect)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더블바텀 라인(double bottom line)[11]의 균형 유지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다. 서로 상충되는 이 개념의 완벽한 혼합(perfect mix)을 적합한 방식으로, 적절히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최대의 난제라고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이 둘 간의 조화를 이루는데 실패할 경우, 유출효과(spillover effect)가 작용하여 인근지역에 있는 다른 사회적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전체 사회적기업의 생존을 저해하는 결과를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연구결과, 유출효과는 사회적기업간 공간거리가 가까운 경우, 동종업종일 경우,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합법성 문제의 근원이 유사한 경우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Kathleen Wilburn와 Ralph Wilburn(2014)의 연구는 수익(for-profit)과 공익(for-benefit) 모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과거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기업의 수익모델이 주를 이루었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결과 환경오염과 사회적 문제 등을 낳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11)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리추구(경제성과 사회성)

최근에는 제4영역(fourth sector)으로서 그동안 괴리되어 있던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 사이를 연결(bridge)하는 새로운 공익모델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새로운 협동형 구조는 미국의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와 19개의 주에서 단기간 내에 입법화가 추진되었다고 한다.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기업은 비영리기관이 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였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금 감면 등의 유인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전통적인 수익모델 경영을 하던 기업들로 하여금 공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Michael E. Porter와 Mark R.Kramer(2006)의 연구에서는 business와 society를 연계하고 있다. 성공한 기업은 건강한 사회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교육, 헬스케어, 평등한 기회제공 등은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생산품 공급과 안전한 근로여건은 소비자를 유인할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내부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한 사회는 기업의 공급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으며 동시에 건강한 사회는 성공적인 기업을 필요로 하며 성공적인 기업이 없이는 일자리 창출, 건강 등 사회적 여건을 개선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과 사회의 연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리추구가 교차하는 부분(가치사슬)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어떠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이때,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를 고려해야 한다).[12] 셋째, 기업의 사회적 아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넷째, 가치사슬 이론을 적용하고 실천(영향 극대화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가치를 두는 사회적 관점을 정립(특화)해야 한다.

Jennifer J. Griffin과 John F. Mahon(1997)의 연구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사이의 관계 규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 영리기업의 사회적 성과(social performance)와 재정적 성과(financial performance) 사

12) 이 때 기업이 지역문제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을 때 생산 및 판매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다루고 있는 관련연구 동향을 25년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둘 간의 관계를 부정적(negative, -)으로 보고 있는 연구도 다수 있으나 이 보다 더 많은 수의 연구들이 이 둘의 관계는 긍정적(positive, +) 관계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종합하였다.

<표 3-5> 영리추구와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 선행연구

제목	연구자	년도	목적	주요내용	연구방법
Vi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Stephen Ko	2012	· 사회적기업의 생존능력과 이의 스필오버 효과에 대한 검증	· 이상적인 사회적기업 형태 · 사회적기업과 spillover effect	· 사례 연구 · 문헌 조사
Strategy and Society	Michael E. Porter and Mark R. Kramer	2006	· 기업의 성공과 사회적 복리 사이의 관계는 zero-sum 관계가 아님을 입증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장 · 비즈니스와 사회의 연계 · 사회문제 해결과 영업이익 창출 동시해결 전략	· 사례 연구 · 문헌 조사
The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Debate	Jennifer J. Griffin and John F. Mahon	1997	· 25년간의 연구 검토를 통한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사이의 관계 증명	· 선행연구 고찰 · 핵심 이슈 도출 · 결론	· 문헌 조사

2)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국내와 해외연구가 차이를 보인다. 국내연구의 경우, 지속가능경영의 관점에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지속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특성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duality) 사이에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정규진 외(2013)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지속성은 제도, 조직상황,

외부환경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도요인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유의미한 긍정적인(positive, +) 영향 관계를 형성하며, 환경적 요인은 정부의존도와 지속가능성에 모두 유의미한 수준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의 구축은 사회적기업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외부 환경자원에 대한 요구수준은 이들의 지속가능성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영범 외(2012)의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지속발전 모형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균형적 달성을 토대로 현재와 미래 세대가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모형을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의 전략적 관리, 조직관리, 기업 및 시장 파악, 마케팅 강화와 같은 전략적 요인과 조직문화, 기관연계 및 지원,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적 영향력과 같은 중재적 요인으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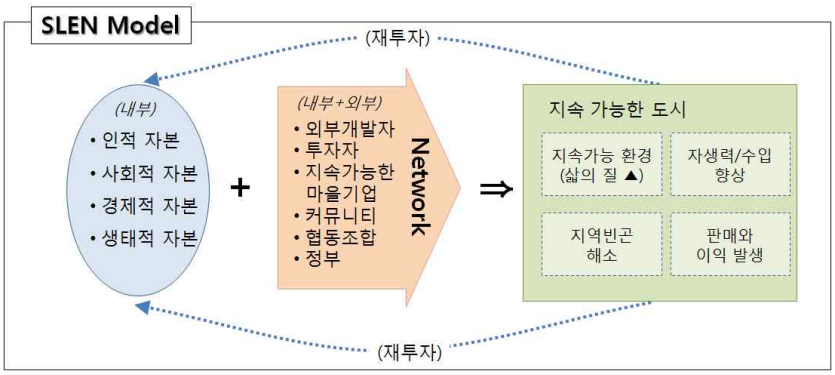
홍성우 외(2011)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생태적 측면에 한정된 개념이 아닌 환경·사회·경제·문화적인 각종 서비스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 제공하면서 자연과 지역사회의 생명력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발전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경제적지속성, 문화적지속성, 환경적지속성, 사회적지속성으로 구분한 뒤 AHP 분석을 통하여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김태영(2010)의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이론체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공동체 정신의 확보와 사회적기업의 핵심적 정체성의 유지에 있음을 주장하고, 그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가치실현과 목적달성이라는 조직의 핵심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성과보다는 사회적 성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함을 강조한다.

오미옥(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환경적·경제적·사

회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으로는 혼성조직의 성격(시장, 비시장, 비화폐적 균형을 이루는 조직), 적절한 규모와 재정능력, 정책결정자들의 이해, 지역에 기반한 민주적 운영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David Wheeler et al.(2005)은 순환적 지역기업(local enterprise) 구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중에서 성공적이며 자생적으로 사업을 일으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40개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심층 사례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모델로 초기 자산(capital)의 투자부터 사업시행과 성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적인 순환적 재투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자산이 지속가능한 사업 네트워크(내외부 자본)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삶의 질 향상과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에 재투자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델의 핵심은 지역자산을 활용한 주민주도로 사업이 시작되어 내·외부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재투자와 지역문제가 해결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림 3-1> SLEN 모델의 기본 틀

Fergus Lyon과 Heather Fernandez(2012)의 연구는 사회적기업 확대 전략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지역에 국한하여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가 소개되면서 사회적기업의 확대 전략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연구결과 소규모의 지역을 서

비스 단위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확대전략을 총 12가지[13]로 제시하였다.

Briga Hynes(2009)의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복합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과 영리추구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므로 이 둘 사이에서 성장을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회적기업가는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명확한 비전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게 되고 사회적기업가가 이러한 비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영리적인 활동은 동시에 추구해야 하지만, 일반시장 하에서는 불편한 위치(uncomfortable position)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불편한 위치는 사회적기업의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을 병렬적으로 나란히 설정했을 경우 더욱 부각된다고 한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은 수익창출과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분 짓는 핵심적 내용임을 강조한다.

<표 3-6>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선행연구

제목	연구자	년도	목적	주요내용	연구방법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규진 외	2013	사회적기업 내부 역량과 환경적제도적 요인 규명, 이들이 사회 기업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 : 제도요인, 조직상황요인, 외부 환경요인 등	· 경로분석 · 2010서울형(예비) 사회적 기업 설문 활용(서울연)
근거이론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지속발전 모형에 대한 연구	이영범 외	2012	사회적기업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모형 구축	· 사회적기업 전략적요인 및 중재적 요인 도출	· 심층면접 (11개 기업)
도시재생 영역의 중요도	홍성우-장우진	2011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도시재	· 사회적기업 지속성 및 도시재생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역차원의 전략적	· AHP 분석 · 설문

13) 현존 공급의 사회적 영향 최대화, 서비스의 다양화, 대상지역과 이용자 수 확대, 새로운 지역에서의 사업 시장(site), 다른 기업, 지역 인수, 지역기업 또는 종사자와의 유리한 입지에서의 계약, 업무를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 신설, 타 기업과 사회적 프랜차이즈 연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인증, 훈련, 좋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자원공급과 교육 장려

제목	연구자	년도	목적	주요내용	연구방법
분석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탐색			생연계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탐색	계획수립을 위해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발굴과 유형화 구체화	조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정신	김태영	2010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설명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내적/외적요인 ·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와 공동체정신, 조직정체성, 조직 동일시 간의 관계 이론적 체계	· 문헌 검토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연관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오미옥	2009	사회적기업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방안 모색	·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개념 · 사회적기업 지속가능한 성장방안	· 문헌 검토
Creating Sustainable Local Enterprise Networks	David Wheeler et al.	2005	지역기반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활동과 성과산출의 피드백과정을 모형으로 구성 (SLEN 모델)	· 지역자산 주민주도로 시작 · 내외부 지원/네트워크 강화 · 재투자/지역문제 해결 · 선순환/지역경제 활성화	· 문헌 조사 · 사례 조사
Growing the social enterprise	Briga Hynes	2009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핵심문제 규명	· 사회적기업가 · 비즈니스 형태 · 사회적기업 성장 · 사회적기업 성장 측정	· 문헌 조사 · 사례 조사
Strategies for scaling up social enterprise	Fergus Lyon and Heather Fernandez	2012	사회적기업 특성에 맞춘 기업 확대 전략	· 초기 사회적기업 사례 연구 · 확대전략 제시	· 사례 조사

3) 사회적기업과 도시재생

도시재생 수단으로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국내외에서 모두 실증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최조순 외(2011)는 도시재생 단계별로 달라지는 사회적기업 역할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시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심층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 단계에 따라 사회적기업 역할은 일자리 창출, 서비스 제공, 더 나아가 마을 만들기 형태로 진화[14] 가능

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장우진(2011)은 지역성에 기반 한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기업 연계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는 도시재생은 지역민 요구와 지역 내발적 발전에 부응하고 사회적·정책적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효과는 사회적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업종개발 및 자립기반 확보를 통한 지속성 담보,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육성, 정부 지원부담 경감, 관련 중앙부처 지역개발사업 통합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부문간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내발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의 구조 변화 조직화를 통한 지역의 사회적 자본 축적이 가능할 것이라 설명하였다.

서종균 외(2007)의 연구는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방식을 통한 도시재생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국 사례에서 사회적기업은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다양한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이러한 참여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토대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는 지역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Robbie Davison(2010)은 지역 제3섹터 부문을 활용한 낙후지역 재생을 Speke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과거 British Leyland, Dunlops, Ford Motor Company 등 굴지의 기업들이 입지했던 대표적인 산업도시였으나 이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쇠퇴가 급속화[15] 되었다. 심층 인터뷰 결과 제3부문을 활용한 지역재생의 현 수준에 대해 주민들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그 성과가 미미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그 원인은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정책들과 도시재생을 선도해온 부문들이 지역적인 문제, 지역과의 연계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성공적인 제3부문을 통한 지역재생을 위해서는 제3부문은 반드시 지역을 기반으로 생겨난 것이어야 하며 지역

14)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를 신생기-성장기-성숙기로 구분하였다.
15) 경제적 쇠퇴(실업률은 영국 전체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음), 교육적 쇠퇴(2008년 현재 리버풀 지역 평균적 학업성과 이하 수준), 사회적 쇠퇴(10대 임산부수(teenage pregnancy) 리버풀 지역 최고)

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이를 끌어나갈 수 있는 전략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표 3-7>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관련 선행연구

제목	연구자	년도	목적	주요내용	연구방법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의 역할	최조순·김태영·김종수	2011	부산 산복도로 재생사례를 통하여 도시재생 파트너로써 사회적기업 역할 모색	· 산복도로 도시재생사업 초기/중기/완성기 단계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역할	· 사례조사 · 문헌검토
지역성에 기반한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연계의 기대효과	장우진	2011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처별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연계 기대효과를 통해 정책 효율성 극대화 방안 도출	· 지역성, 도시재생, 사회적기업의 이해 · 지역성, 도시재생, 사회적기업간 상호관계 · 상호연계를 통한 기대효과	· 문헌검토 · 현황조사
영국의 사회적기업 방식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 연구	서종균·신현방·임정민	2007	영국 사회적기업 방식을 통한 재생 사례심층검토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기여방식 등 도출	· 영국 사회적기업 사례조사 · 사회적기업 사례별 특성 분석 · 한국 지역재생사업과의 비교분석	· 사례조사 · 문헌검토
Speke: a view of regeneration in a localized third sector setting	Robbie Davison	2010	영국 리버풀의 낙후지역인 Speke 지역에서의 제3영역을 통한 지역재생 방안 모색	· Speke 지역 현황 · Speke 지역 쇠퇴문제와 지역재생 정책 · 심층인터뷰 결과 · 시사점 도출	· 심층면접조사 ·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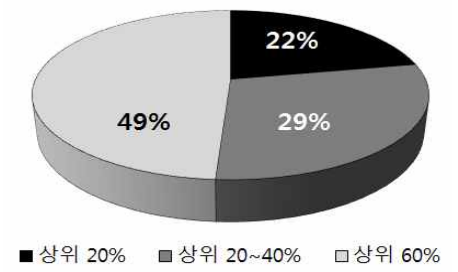
제3절 쇠퇴지역과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 입지특성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활동이 모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 51%가 복합 빈곤지수(multiple deprivation)가 높은 지역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BS, 2005: 12).[16] 복합 빈곤지수가 높은 지역에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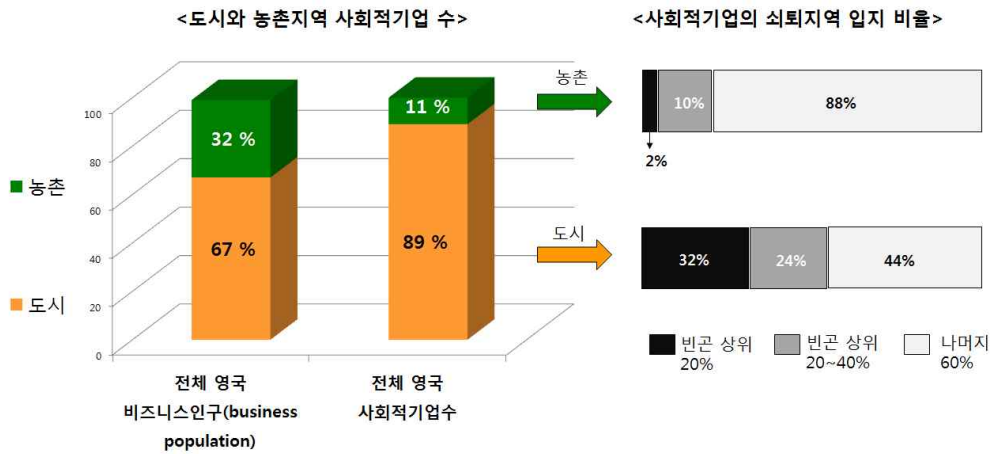
적기업이 입지하는 이 지역에 고용대상인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 서비스 활동에 대한 수요(needs)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영국 사회적기업의 입지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의 89%가 도시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대부분 복합적 빈곤지수가 높은 지역이다. 사회적기업이 입지한 도시지역의 22%가 복합적 쇠퇴지수가 상위 20%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29%가 복합적 쇠퇴지수 20~40%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즉, 사회적기업이 입지한 도시지역의 51%가 복합적 쇠퇴지수 상위 40%에 해당되는 쇠퇴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복합 쇠퇴지수 20%에 입지하는 곳은 2%에 불과하며 88%가 양호한 지역에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IFF Research Ltd(2005). A Survey of Social Enterprise Across the UK. p. 12

<그림 3-2> 사회적기업의 입지 (쇠퇴지역(Wards))



자료 : IFF Research Ltd(2005). A Survey of Social Enterprise Across the UK. p. 13

<그림 3-3> 사회적기업의 입지 : 도시와 농촌의 비교

16) 자료 : The Small Business Service(SBS), 2005. A Survey of Social Enterprises Across the UK

2. 쇠퇴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영국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복합적인 쇠퇴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입지하고 있고(복합빈곤지수 상위 40%이상 51%), 복합적인 쇠퇴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도시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지역에 비해 복합적 쇠퇴문제가 도시지역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빈곤이 악순환 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이 악순환 되며 쉽게 해결이 어려운 도시지역의 심각하고 복합적인 쇠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시의 쇠퇴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용하여 기존 노동시장에 정상 진입할 수 없었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을 생산과정에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 결과,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지만 민간영역과 국가가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취약계층이 직접 생산자가 되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국의 조사결과 도출된 사회적기업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와 그 중에서 특히, 취약계층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는 최근 독일의 Karl Birkhölzer(2009)[17]의 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독일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일반적 의미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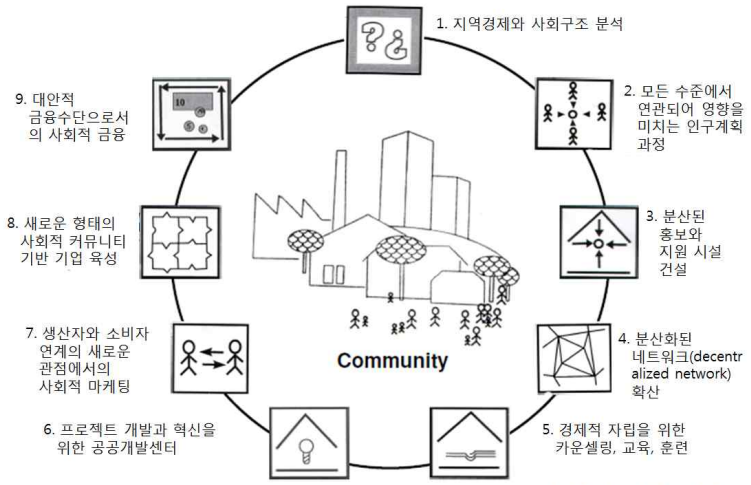
Karl Birkhölzer(2009)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역창출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둘째, 활동적인 노동시

---

17) Karl Birkhölzer, 2009.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 in Local Economic Development. EMES Conferences Selected Papers Series. 2nd EM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Trento(Italy)-July 1~4

18) Karl Birkhölzer(2009) 연구결과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여성 일자리는 전체의 72%, 고령자는 43%, 시간제 일자리는 40%로 전체 일반기업 평균이 각각 43%, 42%, 20%인 것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장 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쇠퇴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 중간자이자 주요 활동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다섯째, 여성과 고령자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평등한 노동기회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 결과,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는 다음과 같은 선순환 발전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자료 : Karl Birkhölzer, 2009.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 in Local Economic Development. EMES Conferences Selected Papers Series, p.22

<그림 3-4> 사회적기업과 지역경제 선순환적 발전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기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쇠퇴지역 재생에 효과가 있다. 취약계층은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하여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취약계층 밀집 거주지는 지속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를 통하여 취약계층은 생활기반 능력을 갖추게 된다. 취약계층이 직접적인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어 지역경제가 서서히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이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선순환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도시재생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종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가능해진다.

제4절 소결 : 연구질문과 분석방법

1. 연구질문

영국과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에서 가장 큰 시사점은 쇠퇴지역에 대한 공간 전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람과 관련한 전략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과거 재생관련 정책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연계 없이 '공간'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면서 이를 통합한 '커뮤니티 뉴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정책에 국한한 접근의 한계가 지적되고 종합적 차원에서의 도시재생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통합한 '지역재생종합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우리는 영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공간과 사람을 연계하는 정책의 핵심은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육성에 두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사회적기업은 주로 도시의 쇠퇴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실업상태를 유지해 온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취약계층이 밀집 거주지인 쇠퇴지역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기업 운영 형태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통한 영업이익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에 종합적 도시재생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재생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리적 도시재생을 넘어서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동시에 지역 내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는 도입단계로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관련정책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를 구체화하는 실증적인 연구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외 관련연구 동향과 선진 해외 국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

는 도시재생의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이 도시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하여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둘째, 지속가능성 요인들은 사회적기업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정에서 지역(공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분석방법 설계

이 연구는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결합한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 Research)을 활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이분법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각의 방법이 가지는 장점을 인정하고, 하나의 연구방법에 한정하지 말고 어떠한 연구방법이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다(이현철 외, 2013: 17).

양적연구 방법은 사회현상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지표들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규칙을 밝히기 위해 활용된다(김미숙, 2006: 46). 반면, 질적연구 방법은 사회현상을 참여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견해를 통하여 사회현상을 보고 경험적 지식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을 발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신경림 외, 2009: 19). 따라서, 양적연구는 미리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는 분석이 주요내용이며, 질적연구는 사전에 설정된 가설 없이 자료수집 과정 속에서 관계 유형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친다(김미숙, 2006: 46~47).

통합연구방법론에서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가지는 각각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가지는 특징을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양적연구 방법과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중 어디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인가? 어떠한 순서로 배치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연구 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연구방법을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 통합연구모형은 달라진다. 통합연구모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학자마다 다르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Morse모형, Creswell과 Plano Clark모형, Tashakkori와 Teddllie모형이 있다. 각 모형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표 3-8> 통합연구방법 모형 분류

연구자(년도)	통합연구방법 모형 구분
Morse(1991)	동시적 삼각화 모형(Simultaneous triangulation)
	질적(QUAL) + 양적(quan)
	양적(QUAL) + 질적(qual)
	순차적 삼각화 모형(Sequential triangulation)
	질적(QUAL) + 양적(quan)
	양적(QUAN) + 질적(qual)
Tashakkori & Teddllie(2003)	다층설계(Multistand designs)
	동시통합설계(Concurrent mixed design)
	동시통합방법설계(Concurrent mixed method design)
	동시통합모형설계(Concurrent mixed model design)
	순차적통합설계(Sequential mixed deigns)
	순차적 통합방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
	순차적 통합모형설계(Sequential mixes model design)
	다층전환통합방법설계(Multistand conversion mixes method design)
	다층전환통합모형설계(Multistand conversion mixed model design)
	완전통합모형설계(Fully integrated mixed model design)
Creswell, Plano Clark(2007)	삼각화 설계(Triangulation Design)
	내재적 설계(Embedded Design)
	설명적 설계(Explanatory Design)
	탐색적 설계(Exploratory Design)

자료 : 이현철·김영천·김경식, 2013. 통합연구방법론. 파주:아카데미프레스, pp. 56~57
오은주, 2008. 혼합연구방법론: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교차시키기, pp. 135~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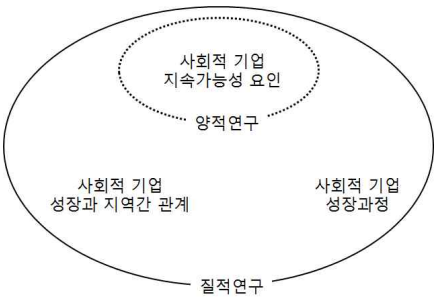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통합연구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밝

히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 제시가 어렵기 때문이다.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연구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부문에 걸친 심도 있는 이론연구 등이 이루어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해결하고자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에 대한 현장중심의 질적연구방법을 통한 근거제시와 함께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병행해 가면서 상호보완 관계에서 각 요인의 근거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증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최근 해외 선행연구결과 사회적기업에서 나타난 특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항을 국내에 적용하여 현상을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적용 국가별·연구자별로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에 대해서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연구에서는 가치사슬 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과 생산 및 판매사이의 상호관계 형성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을 국내 상황에 적용해보고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해를 통한 이론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경우 현장에 기반하여 그 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의한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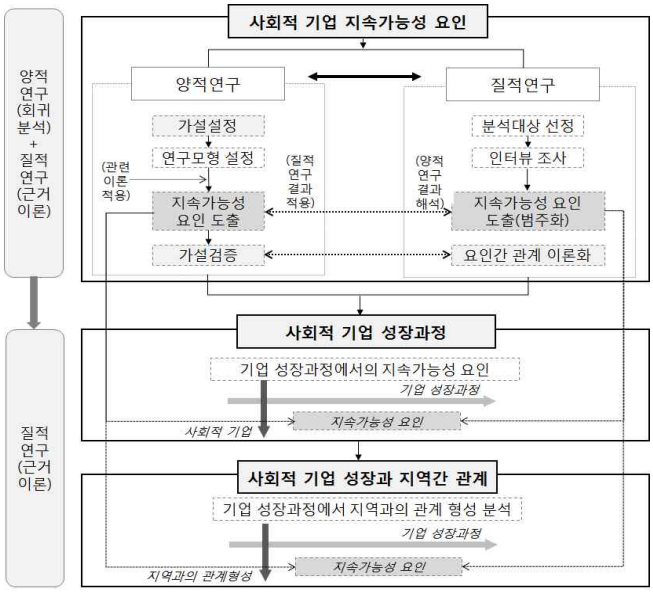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Creswall과 Plano Clark에 의한 모형 분류 중 내재적 설계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기본 질문은 첫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 둘째, 이러한 요인과 사회적기업의 성장 과정, 셋째, 성장과정에서 지역과의 관계 세 가지이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해결하는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질문



<그림 3-5> 내재적 모형 활용

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모형 중 내재적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과 관련한 이론 또는 선행연구가 국가별, 연구자별로 상이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적합한 선행연구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지속가능성 요인과 관련이론을 토대로 양적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뒤,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병렬적으로 질적연구를 통해 재확인·재검증 하고자 한다.[19] 그 다음 양적연구 결과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들을 토대로,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요인들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20]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6> 분석과정

19) 통합연구방법에서 질적분석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양적연구 결과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내용에 대한 의미를 강화시켜 연구결과의 학문적 깊이가 생기기 된다(이현철 외, 2013: 108).

20)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질적연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변수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현철 외, 2013: 142).

제4장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

제1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설정

1. 양적연구를 위한 연구가설 설정

M. Poter(2006)의 '전략과 사회(Strategy and Society)' 연구는 가치사슬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일반 영리기업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별도로 행해야 하는 의무 또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주요 경영전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기업 경영차원에서 접근할 때 이의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음을 가치사슬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기업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업 이윤창출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업경영 전략이 그 지역(local issue)에 얼마나 밀착해 있는가에 따라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말해, 기업의 수익성 추구와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목적은 사실은 상호관계에 있으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가에 따라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즉, 사회적기업 경영의 최대 난제인 수익성 추구와 사회적 목적 실현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관계에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론적으로만 접근되었을 뿐 실제적용 가능한 것인지 국내외에서 모두 실증연구를 통하여 증명되지는 않았다. 또한 해외 관련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추구와 관련하여 이러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수단 중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목적 실현 수단이 기업의 생산 및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

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사회적기업의 생산 및 판매(수익창출)와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 사이에 긍정적 상호관계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수단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단이 사회적기업의 생산 및 판매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21]

연구문제 1. 우리나라 사회적기업도 생산 및 판매(수익창출)와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 목적 사이에 상호관계가 적용되는가?

연구가설 1. 사회적기업의 기업 매출액과 사회적 목적 실현은 상호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특성상 사회적 목적 실현은 미래 기업매출 향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사회적 목적 실현은 일반기업에서의 마케팅 활동에 해당한다.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마케팅 활동이 어렵다. 대개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는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이 지역사회에 소개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기업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목적을 활발히 실현할수록 기업 이미지가 향상되어 공공기관 조달에서 계약을 성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공공뿐만 아니라, '착한소비'를 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역시 증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매출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향상되고, 영업이익은 장기적 투자차원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다시 사용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이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판매량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

21) 이와 연계하여 도출된 요인이 왜 각각 생산 및 판매와 사회적 목적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현장 사례조사를 통하여 검증하고, 기업의 성장과정과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관계 등에 대해서 제 5장의 양적연구방법에 의해 분석한다.

연구문제 2. 사회적 목적 실현은 수단에 상관없이 모두 기업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동일 조건 하에서 어떠한 수단이 매출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수단은 모두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이윤환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순으로 높게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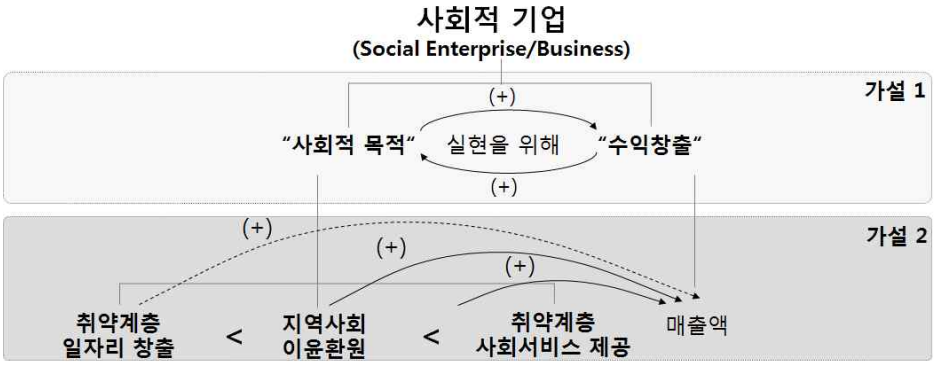
왜냐하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사회봉사 또는 공익활동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가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역사회와 지역기관 등에 알리고 이미지를 좋게 하는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은 일반적인 기업의 사회봉사 활동은 아니지만, 사회적기업에 있어 취약계층 고용은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기본요건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기업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일반인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은 일반인 유급근로자보다 임금이 낮으므로 여러 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비교적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생산 활동에 투입함으로써 매출액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업무 생산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업무, 그리고 추가적인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수단 세 가지 요인이 모두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 정도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우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 이윤환원보다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은 예를 들면, 무료 문화공연 실시, 무료 목욕서비스 제공과 같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서비스 활동이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사회 이윤환원은 현금 또는 현물 등을 지

역사회에 기부하는 형태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대면(face to face) 노력봉사 성격이 강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보다 낮을 것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 요인 중 가장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의 의무사항이자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공공판로를 개척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 요인에 비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림 4-1> 가설 간 관계

2. 연구모형 설정

사회적기업의 활동 목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과 생산 및 판매는 모두 일반기업의 생산활동 결과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검증을 위한 기본 연구모형으로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는 각 투입요소 지수가 생산탄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투입요소들이 생산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박대영 외, 2009: 151).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Q_t = Ae^{\phi t}K^{\alpha}L^{1-\alpha}$$

이 기본 함수에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하면 다음과 같다.

$$\ln Q = \ln A + \phi t + \alpha \ln K + (1-\alpha)\ln L$$

이를 다시 시간 t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산식을 얻을 수 있다.

$$\frac{1}{Q}\frac{dQ}{dt} = \phi + \frac{\alpha}{K}\frac{dK}{dt} + \frac{(1-\alpha)}{L}\frac{dL}{dt}$$

최종적으로 산출된 위의 식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ot{Q}_t = \phi + \alpha \dot{K}_t + (1-\alpha)\dot{L}_t$$

여기서 $\dot{Q}_t$, $\dot{K}_t$ 및 $\dot{L}_t$는 각각 시점 t에서의 산출량, 자본, 노동의 성장률을 말한다.

콥더글라스의 생산함수를 기본모형으로 한 뒤 이에 변형을 가하여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계수(A(·))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모형을 도출하였다.

$$Y = A(\cdot)F(K, L)$$

$$\log(Y_i) = \alpha_0 + \log A_i(\cdot) + \alpha_1 \log(L_i) + \alpha_2 \log(K_i)$$

i : 기업
Y_i : 산출량
L_i : 노동
K_i : 자본
$A(\cdot)$: 기술

생산함수를 구성하는 산출량, 자본, 노동, 기술 등 기본이 되는 변수군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먼저 제2장에서 살펴본 관련이론을 적용하였다. 사회적 경제 이론을 활용하여 모형을 크게 사회적 목적 실현 함수와 수익창출 함수로 구분하는 등 기본모형의 틀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가치사슬 이론을 적용하여 생산 및 판매 함수와 사회적 목적 실현 함수 두 가지 모형식을 설정하고 이 두 개 모형식간 상호관계를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전경제학과 자원의존이론 등을 적용하여 기술계수에 교육 및 훈련, 사회적 목적 실현 수단 등을 지표로 적용하였다.

제2절 자료수집

1. 활용자료 및 분석대상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0조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였다. 동법 제21조에 의거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고용노동부 위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동법 제17조(보고 등)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은 사업 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또는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22]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이 매년 제출하는 개별 사업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에 의한 보고 등에 의한 업무는 매년 전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분석 보고서로 갈음한다.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용된 기초 DB 역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현재까지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초현황 자료는 구득이 불가능하다. 유일하

---

22)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진흥원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①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② 사회적기업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경영공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회적기업 경영공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자발적으로 공시의사를 밝히고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1년 첫 시범공시가 실시되었으며 (재)다솜이재단, 안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에이스푸드, ㈜두레마을, ㈜트래블러스맵 등 총 5개 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2012년에 2차 시범공시가 실시되었으며 1차 때 보다 확대되어 총 24개의 기업이 참여하였다. 가장 최근의 경영공시는 2013년(3차)에 실시되었으며[23] 총 81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경영공시 자료의 작성시점은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3년 경영공시 내용을 토대로 2012년 12월말 현재 총 81개 사회적기업 기초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양적연구를 위하여 경영공시 참여 81개 기업의 데이터를 실증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자료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경영공시에 참여한 기업의 수가 작다는 문제가 있다. 2014년 현재 기준 총 1,052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은 상태이나 현재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81개로 전체 기업수의 8%에 지나지 않는 숫자이다. 둘째, 사회적기업 경영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경영상태가 양호한 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81개 기업은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적극적이며 동시에 양호한 재정상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구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성과보고서를 제외하고 사회적기업 기초현황 데이터를 활용한 첫 실증연구라는 점에서는 연구의 의의가 있다. 기초데이터 구득의 어려움과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사회적기업가 정신 등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현 단계에서 진일보하여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2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공시 담당자 전화인터뷰 결과, 2014년 5월 현재, 2014년 경영공시를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 중에 있었다. 경영공시는 수요조사, 자료작성, 자료검토, 자료보완, 자료등록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4~5월 수요조사 실시 이후, 하반기에 자료작성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연말경 경영공시 자료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지속가능성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이 연구가 가지는 자료구축의 한계와 일반화의 어려움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합연구방법이라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2013 경영공시에 참여한 81개 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및 인증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1개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분야는 기타(34.5%)를 제외하면 환경 분야가 약 2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관광·운동 분야, 간병·가사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국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현황이 보건, 교육, 환경, 간병·가사지원 순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표 4-1> 2013 경영공시 참여 81개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분야

지역	간병, 가사 지원	교육	문화, 예술, 관광, 운동	보건	사회복지	환경	기타	총합계	
								공시 기업	전국 비중
총합계 (분야전국 비중%)	6 (8.3)	8 (11.4)	13 (7.7)	2 (18.2)	8 (7.9)	16 (9.6)	28 (6.0)	81	7.7
서울	2	1	3		2		7	15	7.0
부산	1	2				1		4	6.0
대구		1	1					2	4.4
울산		2					3	5	14.3
광주		2				2	2	6	12.2
대전							1	1	3.6
인천			2		1	2	1	6	10.3
세종						1		1	33.3
경기	3			2	2	7	4	18	10.5
강원					1	1		2	4.1
충북					1	1	1	3	6.3
충남						1	1	2	4.8
경북			1					1	1.6
경남					1			1	2.3
전북			3				2	5	7.4
전남			2				2	4	9.3
제주			1				4	5	20.0

인증 유형의 경우에는 일자리제공형이 81개 기업의 56.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혼합형과 기타형[24]이 각각 1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혼합형의 경우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 74.1%의 기업이 일자리제공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2013년 현재 전국 사회적기업 인증유형에서 일자리제공형이 전체의 63.0%, 혼합형 15.8%, 기타형 13.7%, 사회서비스제공형 6.5%, 지역사회공헌형 1.1%에 해당하는 추세와 다르지 않다.

<표 4-2> 2013 경영공시 참여 81개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유형

인증 년도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총합계
총합계(%)	8	46	1	14	12	81
2007		2		1	2	5
2008	2	3		3		8
2009	1	3		3	1	8
2010	1	12		2	5	20
2011	3	7		1	2	13
2012	1	16	1	4	2	24
2013		3				3

인증년도를 살펴보면 2010년과 2012년에 인증된 기업의 경영공시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2010년 인증 기업이 216개로 가장 많았으며 2012년에는 인증 이후 네 번째로 많은 기업이 인증되었던 해였던 것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25]

2. 자료수집 내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공시자료 기본내용에는 기업 기본현황, 고용, 이윤사회목적 재투자, 지

24) 기타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 판단에 있어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25) 사회적기업 인증현황(2013. 7현재)

역공헌,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후원 및 기부, 그 외에 근로자 교육 및 훈련 등 기타 자료가 포함된다. 자료구성 항목만을 볼 때 공시자료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뿐만 아니라 수익창출 관련한 사항도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연구의 실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기업별로 작성한 자료의 수준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구축된 자료 개수는 81개에서 적게는 20개미만으로 편차가 심하였다. 예를 들면, 기본현황 또는 매출액, 정부지원금 현황 등 자료는 누락된 내용이 거의 없이 대부분의 기업이 상세히 작성한 반면에, 이윤사회목적 재투자, 지역공헌 등의 내용은 누락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다. 고용의 경우도 신규로 고용된 인원만 파악이 가능하며 퇴사한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하여 구체적인 인원 증감에 대한 파악은 불가능 했다.

둘째,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지역공헌 등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 항목명만을 확인 시 개념상 혼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중복기재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보고서 양식의 조사항목의 명칭과도 일치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명확한 개념검토와 이에 대한 정보공유 없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서 생긴 혼란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에 따라 작성자마다 다른 관점과 기준으로 이윤의 사

(단위 : 개소)

연도	신청	인증(신청기업 전체 중 차지하는 비중 %)	현재유지(인증기업 전체 중 차지하는 비중 %)
계	1,904	911 (47.8)	856 (94.0)
2007	166	55 (33.1)	45 (81.8)
2008	258	166 (64.3)	140 (84.3)
2009	199	77 (38.7)	75 (97.4)
2010	408	216 (52.9)	203 (94.0)
2011	255	155 (60.8)	151 (97.4)
2012	386	142 (36.8)	142 (100.0)
2013	205	100 (48.8)	100 (100.0)

자료 : 고용노동부, 2013. 보도자료 재구성

회목적 재투자와 지역공헌을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확인조사가 불가능하여 이 연구에서 자료의 한계로 남는다.[26)]

<표 4-3>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자료 구성

구분		공시자료
기본현황		· 기관명 · 인증번호 · 인증년도 및 설립년도 · 목적 · 사업내용 · 주소(소재지) · 사회서비스분야 · 인증유형
기업운영		· 의사결정구조(운영위원회, 주주총회, (모법인)이사회, 회원총회, 노사협의회, 자문위원회 등 개최 실적(연간) · 근로자 교육/훈련(인, 천원) · 자원연계(자원연계 유무, 연계수, 금액, 내용 등)
고용	유급근로자 고용	· 총 근로자 수 · 취약계층근로자(정규, 비정규,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등) · 일반인근로자(정규, 비정규,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등) · 신규(취약계층, 일반인)근로자(2010, 2011, 2012)
	취약계층 고용	· 장애인, 청년실업자, 고령자, 결혼이민자,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이윤 사회목적 재투자		· 일자리창출 · 사회서비스제공 · 구성원성과급 · 지역사회재투자 · 기타법정적립금 · 조합원 출자 배당 · 부채상환준비금 등 · 향후 사회목적 실현을 위한 적립금 등
지역사회 공헌		·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기부 ·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기여
자산 등 현황		· 자산(2010, 2011, 2012) · 부채(2010, 2011, 2012) · 자본(2010, 2011, 2012)

26) 현재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데이터 구조이다. 향후에는 이 연구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해외사례 또는 관련 연구 등 결과를 종합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자료 작성자가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구체적인 개념과 설명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경영공시 자료와 사업보고서 자료작성을 위한 개념 및 용어 등을 통일시켜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양식을 통합하여 단일양식으로 작성토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이를 이중으로 작성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실제, 인터뷰 조사결과, 여러 형태의 자료작성 양식이 상이하며, 사용하는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데서 생기는 혼란과 자료작성 업무가 과중하다는 불만을 토로하였다. 어디에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지적하였다).

구분		공시자료
매출액 등		· 매출액(2010, 2011, 2012) · 당기순이익(2010, 2011, 2012) · 영업이익(2010, 2011, 2012)
영업외 이익	정부지원금	· 인건비(2010, 2011, 2012) · 사회보험료(2010, 2011, 2012) · 전문인력지원(2010, 2011, 2012) · 기타(2010, 2011, 2012) · 사업개발비(2010, 2011, 2012)
	기부 등	· 기업후원(2010, 2011, 2012) · 일반기부(2010, 2011, 2012) · 모기관지원(2010, 2011, 2012) · 기타(2010, 2011, 2012)

참고 : 별도로 자료년도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2012년 12월 현재기준 자료 임

제3절 분석방법

사회적기업 생산 및 판매와 취약계층 고용자수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양적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찾아내고, 요인별 영향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81개 공시기업 현황을 토대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21.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생산함수라는 기본 연구모형과 관련이론, 그리고 이 연구의 질적연구 결과를 토대로 독립변수를 도출하였다. 가장먼저 도출된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각 독립변수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고려하여 입력방식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절 분석결과

1. 사회적 목적 실현과 생산 및 판매와의 관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과 생산 및 판매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수와 매출액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두 개의 회귀모형을 도출하였다. 두 개의 회귀모형을 통하여 취약계층 고용과 매출액 상호 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모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생산 및 판매 선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상충되는 목적 간에 상호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의 두 가지 목적이 상호 긍정적 관계에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개의 회귀모형에 사용된 종속변수를 각각 교차시켜 다른 모형의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이때 변수 간 영향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시차를 적용하였다. 왜냐하면, 변수 간 영향관계는 해당년도에 동시에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동일 변수를 활용하되 전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일 년이라는 시차를 두었다.

예를 들면, 2012년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1에서 2011년 취약계층 근로자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켜 전년도 취약계층 고용이 다음 년도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의 대리변수인 2012년 취약계층 근로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2에서는 2011년 매출액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전년도 매출액이 다음 년도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년도 취약계층 고용은 다음 년도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전년도 매출액은 다음 년도 취약계층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과 생산 및 판매 사이에는 상호 긍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개의 모형이 가지는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약계층 근로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1의 설명력은 약 67%이며 모형2의 경우는 약 85%를 나타냈다. 모형 전체의 유의확률과 각 독립변수별 유의확률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VIF값과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다중 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각 모형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 1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산함수에서 노동계수에 해당하는 지표들이다. 즉, 취약계층 근로자수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노동의 질과 연관된 교육 및 훈련비용 역시 매출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기술계수[27]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이윤

환원에 해당하는 이윤사회목적재투자 총액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본계수에 해당하는 정부 인건비 지원금과 지역이 가지는 자본인 자치구내 1개 사회적 기업 당 주민등록인구가 매출액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2에서는 취약계층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교육 및 훈련 변수가 취약계층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특히, 다른 변수와 비교할 때 그 영향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영향정도는 유사하여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모형 1과 모형 2, 다시 말해 생산 및 판매를 나타내는 모형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나타내는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근로자 교육 및 훈련이 중요한 변수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을 한 경험이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제공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 및 훈련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취약계층 고용과 함께 교육 및 훈련이 수반될 경우 매출액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장에서 심층 인터뷰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자료구득의 어려움으로 인한 모형의 한계는 여전히 남는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1년이라는 시차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자료구득 여부에 따라 지표마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2013년 경영공시 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실제 자료는 2012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자치구내 1개 사회적 기업 당 주민등록인구, 이윤사회목적 재투자 금액, 근로자1인당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금액 등 2011년 자료구득이 불가능한 일부자료는 2012년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

27) 지역사회 이윤환원은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술계수에 포함하였다.

(모형 1) 종속변수 : 매출액(2012)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유의확률	Durbin-Watson
.906	.847	.000b	2.202

모형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VIF)
(상수)		-3.582	.004	
근로자1인당 자본(2011)	.343	2.618	.024	2.015
취약계층 근로자수(2011)	1.411	7.842	.000	3.808
ln취약계층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2011)	.549	2.784	.018	4.578
ln정부 인건비지원금(2011)	.297	2.527	.028	1.622
자치구내 1개 사회적 기업 당 주민등록인구(2012)	.340	2.721	.020	1.841
지역사회 이윤환원(이윤사회목적재투자금액(2012))	.460	3.024	.012	2.718
ln근로자1인당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제공금액(2012)*	.149	1.018	.330	2.518

* t값, 유의확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모형에서는 이 변수를 제외하였음

(모형 1) 생산 및 판매 함수

$$Y = A(\cdot)\ F(L,\ K)$$

$$\log(Y_i) = \alpha_0 + \log A_i(\cdot) + \alpha_1 \log(L_i) + \alpha_2 \log(K_i)$$

i : 기업
Y_i : 산출량(매출액(2012))
L_i : 노동(취약계층근로자자수(2011), ln취약계층고용자수1인당교육/훈련비(2011))
K_i : 자본(ln정부인건비지원금(2011), 근로자1인당자본(2011), 자치구내사회적기업당주민등록인구(2012))
$A(\cdot)$: 기술(지역사회이윤환원(이윤사회목적재투자금액(2012)), ln근로자1인당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금액(2012))

(모형 2) 종속변수 : 취약계층 근로자수(2012)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유의확률	Durbin-Watson
.687	.660	.000b	1.728

모형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VIF)
(상수)		.772	.444	
매출액(2011)	.160	2.033	.047	1.140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2011)	-.198	-2.609	.012	1.067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_2011	.266	3.550	.001	1.039
정부지원금 중 인건비지원금비중(2011)	.222	2.992	.004	1.022
근로자 교육/훈련인원(2012)	.701	9.087	.000	1.104

(모형 2) 사회적 목적 실현 함수

Y = A(·) F(L, K)

$$\log(Y_i) = \alpha_0 + \log A_i(\cdot) + \alpha_1 \log(L_i) + \alpha_2 \log(K_i)$$

i : 기업
Y_i : 산출량(취약계층 근로자수(2012))
L_i : 노동(근로자1인당 평균임금(2011),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2011))
K_i : 자본(매출액(2011),
정부지원금 중 인건비 지원비중(2011))
$A(\cdot)$: 기술(근로자 교육/훈련인원(2012))

2. 사회적 목적 실현수단

모형 1을 통하여 생산 및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목적 실현수단을 인수 분해하여 그 각각의 영향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사회적 목적 실현 수단이 생산 및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취약계층 고용, 이윤 사회목적 재투자[28],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당초에 이 연구에서 가설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이윤 사회목적 재투자, 취약계층 고용 순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분석결과 반대 순서임이 확인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목적 실현수단별 영향정도는 당초 설정한 연구가설 순서와 정반대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은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 근로자 1인당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금액은 t값이 2 이하이며, 유의확률도 0.330으로 유의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당초 설정한 연구가설과 영향수준 순서가 반대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이 매출액에 왜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다음 장의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29]

---

28) 이를 이윤사회목적 재투자 금액으로 갈음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실증분석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한 지표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어의 통일과 확산을 통하여 사용자 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9) 이 연구에서 연구방법 설계 단계에서 회귀분석 모형의 독립변수의 도출 및 해석과 관련한 부분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양적분석 결과 도출된 각각의 독립변수와 관련한 설명과 해석은 질적연구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5장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5장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도시재생

제1절 분석방법

1. 근거이론(grounded theory)과 패러다임 모형

‘현장기반이론’ 이라고도 불리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사회학자 글레이서와 스트로스(Glaser and Strauss, 1967)가 의료 사회학에서 임상연구를 위해 활용하면서 처음 소개되었다. 그 이후 스트로스와 코빈(Strauss and Corbin, 1990)의 「질적연구의 기초(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등에서 이 연구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스트로스와 코빈의 저서에서는 근거이론을 현장을 기반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특별한 방법론으로 소개하고 있다.

스트로스와 코빈의 정의, 그리고 근거이론 이라는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연구방법은 일정한 가설을 먼저 설정한 뒤 현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론을 도출한다. 이는 가설을 먼저 설정한 뒤 검증해 나가는 과정인 양적연구 방법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다. 특히, 근거이론이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론과도 차별성을 가지는 특징은 근거이론은 기존 이론의 수정 또는 새로운 이론형성을 목적으로 개념과 범주의 인과구조를 발견하는 연구방법론이라는 점이다(조원혁, 2012: 43~44).

2. 분석방법 적용의 적절성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최근에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비교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이후 「사회적기업 저널」이 발간되기 시작하며 사회적기업에 전문화된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연구는 아직은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거나, 심층 사례연구를 수행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이나 사회적기업 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현상과 핵심의제에 대한 심층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 여건에서 양적연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결정하고 변수를 검증하기 보다는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Corbin and Strauss, 2009: 14)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거이론은 이론적 기반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을 기반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개념과 핵심범주를 도출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이론화하는 연구방법론이다. 따라서 이 연구방법은 국내 사회적기업 심층조사를 통하여 현재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을 도출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들이 기업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이라는 공간, 그리고 나아가 도시재생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지 등 관계를 파악하여 이론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이는 근거이론이 다른 양적연구 방법에 비해 변화과정 분석을 통하여 시간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작용 또는 상호작용을 순차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이론이 사회적기업의 쇠퇴와 성장과정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성장요인을 도출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기여의 관계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시 사용하고자 한다.

3. 분석과정

근거이론을 활용한 일반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연구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으로 가서 이 현장의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뷰한 뒤, 그 결과를 일차적으로 정리한다. 녹취록의 형태로 작성된 일차적 질적 데이터를 연구 질문과 목적에 맞게 재정리하고 분석하여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는 코딩과정을 거치게 된다.

근거이론의 코딩과정은 크게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개방코딩은 분석 초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자료를 반복하여 읽는 과정에서 자료가 가지는 의미와 범주[30]를 찾아내는 초기 분석과정에 해당한다. 이는 곧 특정한 의미를 가지지 않은 상태로 흩어져 있던 자료를 연구목적과 자료가 내포하는 의미에 맞도록 자료에 명칭을 부여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둘째, 개방코딩 다음에는 축코딩 과정을 거친다. 축코딩은 개방코딩 자료를 분석적으로 정리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이다. 축코딩 과정에서 범주간의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 이 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근거이론에서 많이 활용하는 모형이 패러다임 모형이다. 패러다임 모형을 토대로 각 범주가 나타나는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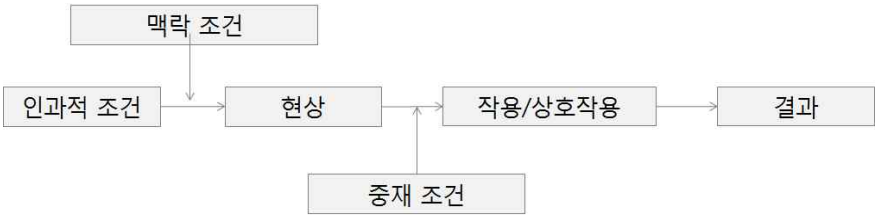
셋째, 선택코딩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범주를 통합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통합과정의 첫 단계는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핵심범주란,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범주를 통합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말한다. 최종적으로 선택코딩 결과 현상에 대한 스토리 라인(story line)을 이론으로 까지 발전시키게 된다.

효율적 코딩과 체계적 이론화를 위하여 근거이론을 적용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스트로스와 코빈(1990)의 패러다임 모형이다. 패러다임 모형은 일정한 사회현상을 두고 일어나는 작용 또는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도식화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재조건이 작용하여 작용 또는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패러다임 모형은 범주간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축코딩 과정에서 유용하게 적용된다. 이 모형의 기본 구조는 〈그림 5-1〉과 같다.

패러다임 모형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사건을 말한다. 맥락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조건을 말한다. 현상은 인과적 조건에 대한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뜻한다. 다음으로 중재조건은 작용 또는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특정한 조건 즉,

30) 범주란 이론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사건을 말한다. 작용 또는 상호작용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뜻한다. 이러한 작용 또는 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자료 : Strauss A. and Corbin J. M., 1990. Basis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INC.

<그림 5-1> Strauss and Corbin 패러다임 모형

제2절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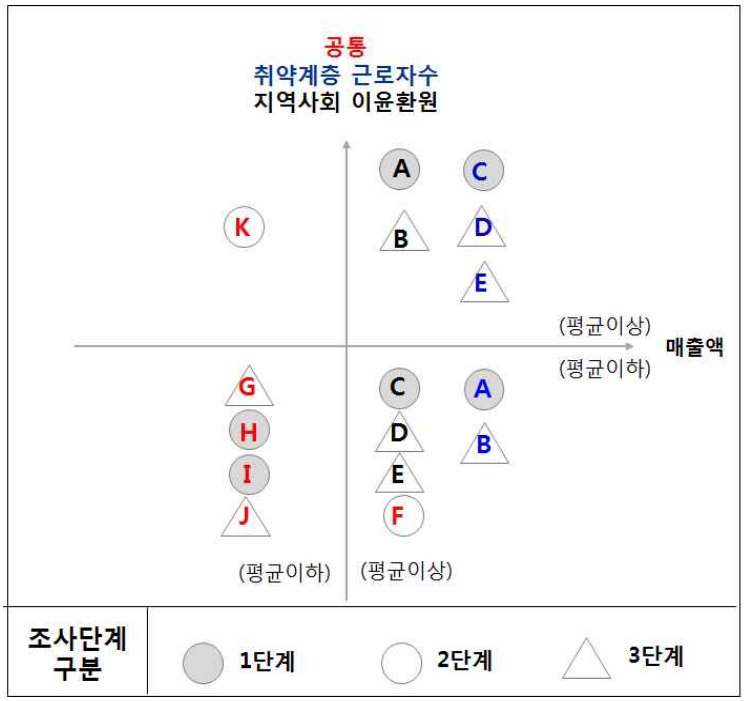
1. 분석대상 선정

질적연구에서는 적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방법에 따라 자료수집 방법과 조사방법이 달라진다. 질적연구의 하나인 근거이론 연구에서는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theoretical sampling)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이란, 자료에서 도출된 주제와 개념에 입각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개념은 분석과정에서 도출되고 이러한 개념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음 단계 자료수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개념도 정교해 지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은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각각의 범주가 포화(saturation)상태에 이르게 되고 연구자가 범주 간 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때 이론적 표본추출 과정을 종료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도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각 기업이 가지는 특징과 기본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수와 매출액, 지역사회 이윤환원과 매출액 두 가지를 교차하여 각각 평균이상과 평균이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81개 기업 중 약 60% 이상이 매출액은 81개 기업 평균이하이며 사회적 목적 실현 역시 분석대상 기업의 평균 이하인 3사분면에 해당

되며, 그 다음으로 약 17% 기업이 매출액은 평균이상이나 사회적 목적 실현은 평균이하인 4사분면에 해당하였다. 그 다음으로 매출액이 81개 기업 평균 이상이고 사회적 목적 실현 역시 평균 이상인 1사분면, 그리고 매출액은 평균 이하이나 사회적 목적 실현은 평균 이상인 2사분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본적 유형화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명확히 구별 가능한 두 개의 그룹, 즉, 사회적 목적 실현과 수익성 창출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 기업(1사분면)과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기업(3사분면) 간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때, 사회적 목적 실현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수, 지역사회 이윤환원,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수단이 있으나 4장에서 '모형 1' 분석결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제외한 두 가지 변수를 참고로 하였다. 적용한 자료시점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5-2> 분석대상 구분

두 번째 단계로, 두 개의 구별되는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매출액은 높으나 지역사회 이윤환원이나 취약계층 고용은 평균이하인 기업(4사분면)과 반대로 매출액은 평균이하이나 지역사회 이윤환원이나 취약계층 고용을 81개 기업 평균 수준보다 많이 하고 있는 기업(2사분면)을 분석하였다. 이들 기업이 앞서 1단계에서 살펴본 기업들과 구별되는 특징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살펴본 기업들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분석한 그룹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매출액이 평균이상이고 지역사회 이윤환원과 취약계층 고용 역시 81개 기업 평균이상인 1사분면과 그 반대의 경우인 3사분면에 속하는 기업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선정단계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첫째, 각 사분면에 해당되는 기업의 수를 참고 하였다. 따라서 81개 전체 기업 중 3사분면에 해당하는 기업이 60%에 해당하므로 분석대상 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정하여 자료 간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둘째, 기업의 종사자수를 고려하였다. 81개 기업의 총 종사자수 평균은 36인이다. 이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작은 기업은 되도록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31] 셋째,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가 포함되도록 하였다.[32]

그 결과 〈그림 5-2〉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총 11개 기업을 이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론적 표본추출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석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개념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비교적 활발히 수행하면서 매출액도 많은 기업(1사분면)과 그 반대 상황의 기업(3사분면)을 1단계로 조사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목적 실현 수준은 높으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2사분면)과 사회적 목적 실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매출액은 높은 기업(4사분면)을 2단계로 조사하였

31) 단, 한 개의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종사자수가 월등히 많으나 이를 종사자수에 포함하였다. 이 사례는 사회적기업 인증 초기에 시작된 상징적인 기업으로 사례에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32) 이 연구는 하나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로 특정 사회서비스 분야로 분석범위를 한정하지 않았다.

다. 마지막으로 범주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기업을 일부 추가하여 3단계로 조사하였다.

총 11개의 기업 중에서 6개의 기업은 취약계층 근로자수와 지역사회 이윤환원 각각의 현황자료와 매출액 현황을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한 사분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들은 주로 2, 3 사분면에 해당된다. 한편, 나머지 5개 기업은 1, 4분면에 각각 포함되었다. 분석대상 기업들의 세부 현황은 〈표 5-1〉과 같다.

<표 5-1> 분석대상 기업 현황

구분	사회 서비스 분야	소재지	설립 년도 (년)	인증 년도 (년)	총 종사자 (취약) (인)	사분면 구분	
						지역사회 이윤환원 & 매출액	취약계층 근로자수 & 매출액
A 기업	환경	경기 (화성시)	2003	2007	25 (10)	1	4
B 기업	환경	인천 *서면조사	1998	2010	28 (11)	1	4
C 기업	기타	서울	1987	2007	75 (50)	4	1
D 기업	간병, 가사	경기 (시흥)	2008	2010	131 (76)	4	1
E 기업	간병, 요양	서울	2005	2007	319 (160)	4	1
F 기업	사회 복지	서울	2010	2013	27 (15)	4	4
G 기업	기타	전북 (무주)	2009	2011	14 (11)	3	3
H 기업	기타	서울	2008	2010	24 (10)	3	3
I 기업	기타	경기 (남양주)	1991	2011	28 (16)	3	3
J 기업	환경	경기 (시흥)	2002	2008	9 (5)	3	3
K 기업	기타	충남 (천안시)	2008	2012	41 (32)	2	2
L 기업*	간병, 가사	경기 (화성시)	2008	2013	-	-	-

※ 추가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방문 및 인터뷰(사무국장),
00시 사회적경제협의회 정기총회 참관(정기총회에 참석한 일부기업 담당자 간략 인터뷰 실시)
* 2013년 경영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아니나, 00시 사회적경제협의회 정기총회시 인터뷰를 했던 기관 중 하나로 이 연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례를 추가하였음

<표 5-2> 분석대상 기업 세부현황

기업	사업 아이템 수 (개)	기업 연령 (년)	인증 년차 (년)	총 종사자 수 (인)	1인당 평균 임금 (천원)	취약 계층 근로자 수 (인)	취약 계층 근로자 비중 (%)	취약 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인)	1인당 자산 (천원)	1인당 부채 (천원)	1인당 자본 (천원)	매출액 (천원)	1인당 영업 이익 (천원)	시/구내 사회적 기업수 (개)
81개 기업평균	4	10	3	36	1,281	21	57	30,023	24,478	14,820	8,751	52,536	-5,462	10
A	5	12	6	25	1,561	10	40	227	59,069	40,189	18,880	87,778	2,839	5
B	7	17	3	28	1,766	11	39	24	109,732	68,983	40,749	104,856	40	5
C	5	28	6	75	1,177	50	67	29,264	21,000	13,858	7,142	81,702	1,109	23
D	5	7	3	131	933	76	58	3,575	2,800	3,371	-570	12,739	-51	10
E	5	10	6	319	1,442	160	50	13,056	14,014	2,247	11,767	15,312	193	17
F	5	5	1	27	1,672	15	56	1,052	35,021	14,061	20,959	95,239	-2,700	6
G	4	6	2	14	1,262	11	79	223	22,359	16,418	5,941	71,644	837	1
H	7	7	3	24	1,670	10	42	1,000,000	23,775	15,240	8,535	41,071	836	23
I	5	24	2	28	1,189	16	57	94	12,755	9,411	3,344	25,619	-6,785	11
J	6	13	5	9	1,452	5	56	333	42,087	17,279	24,808	66,027	-4,061	10
K	4	7	1	41	772	32	78	72	24,372	1,524	22,848	12,919	-2,528	10

2. 자료수집

각 기업의 경영공시 담당자 또는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를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s)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시간은 평균적으로 기업 당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질문 형식을 사전에 정형화하지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고려하여 사회적 목적과 생산 및 판매와의 관계, 주로 활용하고 있는 사회적 목적 실현수단,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질문하였다.

<표 5-3> 조사단계와 기간

단계구분	조사기간	조사기업 수
1차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개
2차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2개
3차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5개

인터뷰 내용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하였다. 인터뷰 직후 내용을 녹취하여 조사일지를 작성하였다. 이 조사일지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 도출을 위한 메모작업 등을 하며 근거이론에 기반 한 질적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거쳤다.

제3절 지속가능성 요인과 지역사회

1. 지속가능성 요인 도출[33)]

1) 생산 및 판매

①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고용이 기업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

33) 이는 근거이론 분석과정 중 개방코딩 과정을 거쳐 자료를 범주화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다. 첫째,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공공시장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유형 중 일자리 창출 유형은 일정 비율 이상 취약계층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됨과 동시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다수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공시장 진입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약계층 고용 자체가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목적 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공공시장 진입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회적기업 경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취약계층 고용이 사회적기업에 유리한 이유는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및 생산품의 소비자가 바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취약계층은 생산자이자 직접적인 소비자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을 통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 및 판매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이 가질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의 두 기업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도 기업이지만, 사회적기업이 아니면 이런 일을 잘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일을 하려고 막상 가보면 쓰레기에, 냄새에, 바퀴벌레에, 못해요. 이런 일. 서울형 집수리나 에너지효율사업해서 가서보면... 힘들어요. 일반기업 직원들은 아마 못한다고 할 거예요. 여기 직원 스스로도 솔직히 봉사한다는 마음 없이는 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집수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집수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집수리 해드리겠습니다'. '견적 보겠습니다'. 견적 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또 전화해서 '내일 가겠습니다'. 현장 가서 일하고 현장 끝나고 와서 '만족 하셨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최소한 대여섯 번을 통화하죠.

어차피 직원들도 취약계층이 많고, 다들 그 생리를 너무 잘 아니까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소통과정... 집 자체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집수리 생활환경은 물론 마음부분도 치료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건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겠죠."

(F 기업 인터뷰 내용중)

"저희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장애인 근로자들에 있어요...(중략)...다른 기관들은 장애인들이 대부분 사용성 평가 업무만을 하고 있죠....(중략)...평가는 비장애인 전문

평가(기술평가)와 장애인평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한사람이 그 두 가지를 다할 수 있는 것이 최대 경쟁력이자 장점이지요. 훨씬 더 큰 효율성을 가지는 것이고요. 이 쪽만(사용성 평가) 하는 사람은 제한이 되어있는데 굉장히 기계적이게 되는데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에요."

(H 기업 인터뷰 내용중)

단, 취약계층 고용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취약계층 대부분은 이전에 직업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직후 일반 종사자 수준으로 생산성을 발휘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은 중증 장애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흔히 발견된다. 그러나 인터뷰 조사결과, 중증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반복 업무 수행시 생산성은 2년 만에 정상인의 70% 수준 이상으로 향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취약계층 고용은 인력활용 및 관리 방식에 따라 그 성과 면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②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사회적기업에 있어 근로자들의 교육 및 훈련은 기업 성장 전 과정에 거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 고용에 있어 교육 및 훈련은 생산 및 판매 증대와 관련된 가장 핵심사항 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취약계층의 경우 그동안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의 전담업무에 관한 적절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통하여 생산성이 일반인에 비해 낮았던 취약계층의 생산성은 큰 폭으로 상승된다. 특히, 이들이 사회적응에 성공할 경우 그 학습효과는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실무 투입 단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꾸준한 교육과 훈련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중증 장애인 고용기업은 2년 동안 정부 인건비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맞는 업무이면서 동시에 해당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생산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경제적 자립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인정하였지만, 모든 기업이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은 대부분 일반적인 수준의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특수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와는 별도로 전문화된 위탁교육 또는 민간전문기관 교육이 필요하다. 이 때 비용은 기업이 부담을 해야 하므로 기업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부에서 인건비로 지원을 받은 비용으로 교육에도 쓰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인건비 지원 받아도 그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 지원을 전액 줄 때도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죠. 보험료도 내야하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기업에서 교육까지 알아서 담당하라고 하는 건 좀 아니죠. 취약계층들은 지금까지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던 분들이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됐는데, 정부가 인건비 지원해 줄 테니 이 모든 걸 떠 맡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윤도 내라고 하니 쉽지 않죠.."

(J 기업 인터뷰 내용중)

하지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 반드시 요구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민간기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초기에는 주로 기업 내 인력을 활용한 간단한 실무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이 쌓이게 되면 전문위탁기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기업에서 지원해 주어 자격증 등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안정적 매출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투자 성격이다.[34)]

"처음 사람을 뽑았는데,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서 나무 몇 센티 잘라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안 거지만 "센티"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정도였다는 거죠....(중략)... 그런데 지금은 뭐, 저랑 농담 따먹기 하고, 자격증이 몇 갠지 몰라요. 날라 다녀요. 아주. 저보담도 더 잘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아무 일도 주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봐야 되요."

34) 그러나 이 경우, 많은 기업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은 기업비용으로 교육과 훈련을 한 이후, 이직을 하는 상황이다. 더 나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가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당장 이는 기업의 재정과 직결이 된다. 한참 생산성이 향상되어 업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초기 비용을 투입하여 새로운 인력을 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이 모두 기업의 재정 부담이 되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중략) 저희는 주로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죠. 자격증 따는데도 도움을 주고요. 3년 전엔 폴리텍을 많이 보냈어요. 요즘에는 진흥원에서 자격증시험을 보게 하고 있어요. 한 코스에 60만 원 정도 들죠. 회사비용으로 부담하고 있고요..."

(G 기업 인터뷰 내용중)

③ 지역사회 이윤환원

현재 지역사회 이윤환원의 경우 실제 이윤이 발생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윤이 발생하면 지역사회로의 환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는 앞서 살펴본 가치사슬이론에 의한 경영전략 측면이라기보다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측면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능 기부나 장학금 기부 같은 걸 하죠. 그런데 그건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영업이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 판로개척은 주로 인맥을 활용하는 편이죠. 지방이다 보니 선후배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을 통해 소개받고 또 다시 소개받고 하는 거죠. 물론 사회봉사 일들을 하다보면 공공에서 알아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G 기업 인터뷰 내용중)

"근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그렇지만 이익창출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이었다면 민간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서비스나 환원을 위하여 기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요. 다시 말해서 이익이 먼저가 아니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환원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요. 그래서 큰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는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현재 상태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내는 게 사회적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L 기업 인터뷰 내용중)

인터뷰 결과 지역사회 이윤환원 활동 참여 초기에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의 일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이윤환원

활동 결과 사회적기업들은 기업 자신을 알림과 동시에 수의계약 또는 협약 등을 통해 공공기관 조달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35] 따라서 기반을 확립한 기업들의 경우에 지역사회 이윤환원 활동은 공공기관 판로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일 년 내내 여러 가지 집수리부터 다양한 무료 사업을 해요. 비용도 많이 들죠. 구청에서도 이걸 아니까 협약을 통해 일을 많이 하게 해주죠. 예를 들면 구청에서 주관하는 소규모 개보수 사업이라던가... 구청과 수의계약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서 취약계층 고용을 유지하고 또 이익이 나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저희가 올해 4년차인데 보시다시피 소문이 나서 일반상가나 건물에서도 별도로 영업을 안 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저희한테 일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
> (F 기업 인터뷰 내용중)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의 기부활동들은 대외적인 회사 홍보자료로 활용되고 있었다. 현물 또는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이윤환원 활동을 통하여 다른 기업과 MOU를 체결할 수 있게 된다. MOU 이력과 기부이력은 또 다른 기업과의 MOU로 연결된다. 이러한 순환적 과정을 통하여 연계기관 수가 점차 확대되고 그러한 기관들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되거나 판매를 위한 물품 등을 기증받게 된다.

> *"저희 자체의 수익사업을 할 때 무료서비스를 하고 봉사했던 부분의 이력과 경험이 기관고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무료 서비스를 했던 수많은 이력, 그리고 그러한 일에 참여했다는 이미지로 인해서 우리가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계약을 딸 때 도움을 많이 받아요. 무료서비스 했던 걸로 결국 수익사업 초기진입이 수월해 진 거죠."*
>
> (E 기업 인터뷰 내용중)

---

35) 참고 : 4장의 회귀모형 분석결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뷰 조사 결과 이 항목 자체의 유의성이 없다기보다 자료 작성 기준의 부재로 개념의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기업들이 지역사회 이윤환원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헌 등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명확한 개념 제시가 되지 않고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료 작성과정에서 기업별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난 것이 4장에서 분석된 모형1에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한 원인이라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사회 이윤환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사회적기업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지역사회 이윤환원이 직접적으로 영업이익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역 네트워크 구축차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공공기관 계약을 위한 기반 형성이 가능해진다. 사회적기업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최저가 낙찰이 될 경우 도저히 비용을 맞출 수 없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입찰 참여대신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에 초점을 맞추어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영업은 상대적으로 대금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운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기업들이 선호하는 영업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솔직히 사회적기업 이라는 게 크게 와 닿진 않을 거예요. 시청에서 홍보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홍보하는 기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크게 홍보를 해줘요. 그 때 저희 회사가 어떤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알리게 되고요. (중략) 실제, 저희는 시청과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조물품 납품을 해봤는데 일반 업체는 결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대금도 제 때 결제되고 확실하니까 모든 게 공공기관과 연계되는 게 확실하죠." (K 기업 인터뷰 내용중)

이처럼 사회적 목적 실현이 초기 공공시장 진입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간병 요양의 경우 정부 바우처 사업 위탁운영이 가능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위탁이 가능하다. 건설관련 업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관급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업종은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저희 상품 자체가 공공기관에 납품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천연비누를 제조하고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에 납품할건 아니죠. 그 외에 제조업은 없고요. 청소용역을 하고 있긴 한데 학교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연 2,2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 이상이 되면 전자 입찰을 하죠. (중략) 현재 청소용역이 다 그래요. 1인당 인건비가 1,200만 원 인가 되어 있어요. 그 속에는 기업이윤, 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죠. 현실적으로 월 100만 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생산품이 아니라서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C 기업 인터뷰 내용중)

④ 정부지원금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항목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당초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지원금 지급이 인건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지원금 정책이 지나치게 인건비 지원 중심으로 치중해 있기 때문에 지원종료와 동시에 고용인원을 감축하면 아무 효과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은 초기 취약계층 고용시 일반인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보전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기업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지원은 2007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들어선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정부정책과 지원에 대한 수요계층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관련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인건비 중심의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초기 창업기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그리고 고용의 대부분을 취약계층이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분명히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이러한 인건비 지원을 둘러싼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 지원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 운영방식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원제도는 기업의 성장단계와 기업 유형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인건비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의 인건비 지원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기업문화를 해치는 거죠. 기업문화 측면에서는 0점이라고 생각해요. 일하던 안하던 월급이 나오는 것... 이것은 자활기업 때부터 이어져 오던 것이죠. 직원이 10명 있다고 하면 월급은 그쪽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하자 하면 기업은 망하더라도 돈은 나오니까 하는 마음 때문에 현장에선 힘들다는 거죠.

힘들더라도 함께 희망을 가지는 방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신뢰가 형성될 텐데 축 처지게 되니까 동력이 생기질 않죠.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애초에 기업문화는 NPO와는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비슷한 분위기 예요. 생존의

문제이자 지속성을 중요시하는 기업문화를 잘 형성시켜 놓는 지원책이 필요하죠."

(C 기업 인터뷰 내용중)

"집적이 안 되는 분야, 어차피 인력, 노동중심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훨씬 중요 할 거예요. 분야마다 틀린 거죠. 성격에 따라 다르게 지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략)... 예를 들면, 어려운 가정에 도시락배달 해서 남길 것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지하면서 사회적비용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이라 생각해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하고요. 하지만 저희처럼 자립성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는 사업개발비나 기술투자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해요. 기업 특성과 관련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H 기업 인터뷰 내용중)

초기 창업기를 지나 성장과 발전의 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개발비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와 관련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개발비 지원은 소규모로 형평성의 원칙하에 지급되고 있어서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사용가능한 용처도 제한적이어서 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략)... 사업개발비 신청도 해보았는데 빈번히 떨어졌어요. 저희는 기술기반 사업을 하기 때문에 투자규모가 큰 편이죠. 작년엔 1억짜리로 신청을 했는데 애초에는 지원 유형을 A/B/C형으로 나누고 최대 1억까지 줄 것처럼 했어요. 그렇게 공고는 냈어요. 그런데 결국엔 2000만원 씩 쪼개 주었어요. 그것 가지고는 R&D 기술개발 사업은 불가능하죠. 이 제도를 만들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결국 금액이 커지다 보니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죠."

(H 기업 인터뷰 내용중)

⑤ 자본금

기업 자체의 자본금 역시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현재까지 영세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적은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사회

적기업 업종은 현재 교육 및 서비스 기반 업종이 많기 때문에 인력을 제외하면 큰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일반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에서도 초기 창업 당시는 소자본으로 시작하게 되지만 기업이 성장해 나갈수록 사업영역 확장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해 추가 자본금 확보가 필요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때 일반기업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의 자본금은 자체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을 성장시키지만, 한 단계 더 사업 확장을 하고자 할 때 자기 기업 자체를 확장하기보다 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 초기 자본금이 5천 만 원 이었는데. 그건 건설업 최소자본금 이었어요. 건설업으로 등록하려면 필요했던 최소 자본금이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확장이 필요하다 할 때는 주주 출자로 출자금을 확대해서 단계단계 성장해 나가는 중이예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싶은 일들도 다 조건을 갖춰야 하거든요."

(F 기업 인터뷰 내용중)

다시 말해, 어느 정도 선에서의 기업 성장을 위한 자체 자본금 확보는 이루어지지만 더 많은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이종 사회적기업 간에 협동조직을 마련하여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 점이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일반기업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기업과 달리 적정한 규모에서 해당지역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되 현재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하여 필요시 타 기업과 연계를 통하여 대응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의 재정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보다 전문화된 생산 및 판매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지는 장점이 있다.

"저희도 여기 0000에 위치한 5개 건축분야 사회적기업들이 모여서 건축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건설업 등록을 준비하려고 만든 거죠. 전부 자활기업으로 시작한 기업들이예요. 일은 하다 보니까 기반도 어느 정도 잡히고 건설업 면허를 가져야 더 많은 관급공사와 제대로 된 일을 하겠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면 일자리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고...

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지원을 받고 언제까지 먹고 살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기위한 환경은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누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요. 그래서 5개 기업이 스스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모이게 된 거죠.

지금 여기 와서 공사하는 저 분들이 전부 5개 기업 대표들이세요. 우리가 이 건축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여기 자체에 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생긴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나서 아직 일이 많지는 않지만 늘어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일반기업들이야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기업이 많지만 사회적기업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력 있다고 봐요."

"(생략)... 지자체와의 협력도 결국에는 면허가 있어야 되요. 건설면허 때문에 건축협동조합을 시작한 것도 같은 얘기에요. 공공기관에서도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 줄 수는 없으니 면허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만들게 됐어요. 우리가 기업들이 작다보니 한 개 기업에서는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자본금 모으기도 그렇고...그래서 모이게 된 거죠."

(G 기업 인터뷰 내용중)

⑥ 자치구내 1개 사회적기업 당 주민등록인구

1개의 사회적기업 당 주민등록인구는 서비스 인구를 뜻한다.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게 되는 주 수요자를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1개의 사회적기업 당 주민등록인구가 많을수록 소비층이 많음을 의미하며 소비층이 많을수록 기업의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36]

"서울형집수리사업은 사회적기업만 참가할 수 있어요. 처음에 설립 초기에 바로 이 부분에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크죠. 시장을 보니, 서울시 서울형 집수리사업으로 잡힌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데 당시 서울시에 사회적기업이 3개 밖에 안 되서 이왕 하는 거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자 싶어서 사회적기업을 시작하게 됐지요."

(F 기업 인터뷰 내용중)

36) 반대의 경우, 지역의 주민등록인구가 한정되어 있다면 지역 내 사회적기업 수에 따라 민간 영리기업과 같이 사회적기업간 경쟁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반드시 경쟁적 관계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협력과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사회적 목적 실현

① 매출액

사회적기업은 비영리 기관과 달리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여기서의 협의의 수익이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매출액을 유지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즉, 기업에서 고용하는 취약계층의 임금은 기업의 자체적인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사회적기업 대부분도 이러한 부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 기간 내에 자체적인 생산 활동을 통한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업의 매출액 수준에 따라 당해년도 또는 차 년도 고용인원이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쉽게 생산단가를 절감하고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매출액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매출이 많아지고 영업이익 나면 딱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해요. 사내 유보랑 신규고용이죠. 신규고용은 한 해에 연인원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2~3명이예요. 이직률은 높지 않으니깐 4~5년 정도 쭉 있죠. 사내 유보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젊은 사람들이 시도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센터 같은 걸 준비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H 기업 인터뷰 내용중)

② 근로자 임금

한정된 재원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회적기업 자체가 일반 기업들에 비해 아직까지는 영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수준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고용 등을 위하여 많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여건인 기업이 대부분이다.

"일을 하다 보면, 더 일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또, 집에 가면 아무도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일을 더 시키면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껏 해오지 못하

다가 한 명한테만 조금 늘리는 것을 이번 달부터 시작했어요. 업무시간을 연장하고 월급을 더 주기로 한 거죠."

(K 기업 인터뷰 내용중)

"기본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추가고용을 하죠. 저희도 2012년에는 추가고용은 없었어요.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아질 거란 전망을 가지고 우선 현원을 그대로 유지해 나갔죠. 그리고 그 다음해에 매출이 크게 향상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기순이익이 많이 마이너스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서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우리 적정 수준이겠다. 버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기 시작한 거죠. 2013년 매출이 늘고 흑자가 발생해서 2명을 추가 고용했죠. 이제 이정도가 우리 기업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적정 수준인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란 걸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아야 해요. 우리 목적을 생각해 보면, 장애인, 특히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이 불가능한 차단한 사람들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23명 비장애인 인원은 추가고용 없이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고, 앞으로 신규고용은 지적장애인만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C 기업 인터뷰 내용중)

실제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월 급여는 일반 근로자 급여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37] 그러나 실제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짧은 편이다. 즉, 업무시간은 일반인에 비해 짧게 하는 대신 임금은 그 시간에 비례하여 일반인 월급여 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급여만큼 영업이익을 내야 하는데, 지원이 끊기면 자립성 확보가 어려운 점은 있어요. 저희도 실무자 인건비 빼면 사업단 이익금이 연 100만 원 정도 남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시간제 급여로 일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의 불만은 크게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시간만큼 일하고 그 만큼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D 기업 인터뷰 내용중)

---

37) 2013년 경영공시 참여 81개 기업들의 근로자 임금수준을 확인해 본 결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17만 5천 원이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확인되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월평균 급여가 143만 5천 원이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당 급여수준으로 보면 취약계층 근로자의 급여가 오히려 일반 근로자 급여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취약계층의 절대 근로시간을 늘이지 않아 과도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한 명의 취약계층을 추가로 고용하고자 하는 두 가지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정해진 재원 내에서 보다 많은 인원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원금 종료시점에 임박할수록 이에 대한 생존전략으로서 현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일단 고용한 취약계층은 지원금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원칙하에 임금을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임금을 줄이는 대신 업무강도는 높아지는 상황을 피하고 근무여건을 최대한 자유롭게 유지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이 나오니까 지금 당장 많이 주고, 지원금 끊기면 내보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원금 받는 순간부터 미리 생각을 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주더라도 오래 고용을 유지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중략)

저희도 현재 24명이 있는데 저임금으로 오래오래 모두 같이 유지해 가자는 전략으로 일하고 있어요. 모든 직원이 100 퍼센트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만족하면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중략) 본인들도 그걸 알아요. 회사 상황이야 뻔하잖아요. 큰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임금이 낮은 편이지만 인정하고 본인들도 오래 일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임금이 적다고 큰 불만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G 기업 인터뷰 내용중)

③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

현재 대다수의 사회적기업들은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으로 인해 생기는 마이너스 부분을 일반일 근로자 고용을 통해 보전하는 형태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1개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과 일반인의 비중이 6:4에서 5:5 정도이며 근무시간은 취약계층은 평균 주당 36시간, 일반 근로자는 주당 53시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완벽하게 유급 취약계층 고용만으로는 기업 경영이 어려우며 일반인 근로자와의 적정 비율을 혼합한 고용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희는 3개 부서를 두고 있어요. 해체 작업을 하는 데서 나오는 수익으로 다른

부서를 먹여 살려요. 취약계층이 하는 해체 라인은 처리비용은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적자예요. 그럼에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공헌 프로그램 돌려서 그쪽 생산라인을 유지하는 거죠."

(A 기업 인터뷰 내용중)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장애인고용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영역이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의 경우 건강·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수행 가능한 업무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취약계층 고용을 늘이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3년 이내에 적합한 업무분야와 생산품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고용유지는 어렵게 된다. 기업 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영역을 지나치게 확장 할 경우 경영상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교육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생산성이 100만원 급여에서 40만원, 즉 40만 채워줄 수 있다면 나머지 60%는 일반 근로자들이 하는 생산 활동으로 메꾼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밖에서 들 왜 그렇게 한 개 기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중증장애인들의 특성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달라요. 한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하기 어렵죠. 또 가지고 있는 장애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들이 천차만별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입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가게 하다 보니 사업영역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어요.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인들이 수익을 내는 사업도 필요하고요."

(K 기업 인터뷰 내용중)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기업경영 관점에서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두 가지 관점에서의 폐해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소규모 기업에서 어떠한 한 분야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여러 품목을 생산할 경우 생산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직원간 갈등문제이다. 취약계층과 일반인 근로자 사이에 상하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 영업이익과 직결되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 고용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또 한 가지로 직원 간에 생겨난 불신과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 듯 한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걸 고쳐가야 했어요... (중략)... 인쇄가 매출의 80~90%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로 장애를 가지 않은 일반인이 인쇄 업무를 해서 생산성이 나지 않는 장애인들이 하는 복사용지 업무의 손실을 막아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더라구요. 그렇다 보니 내부에서도 위계관계가 성립돼서 내부 분위기도 좋지만은 않았고요.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부분이 자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 주어야 동등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 조직 분위기도 개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때부터 복사용지 업무를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인쇄업무를 줄여나갔어요. 내부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단이었는데 영업적자가 많이 나서 몸살을 앓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한 번 겪어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 단행을 했지요. (중략)

복사용지 생산은 모두 지적장애인들이 투입되어 하고 배송은 못하니까 그 부분에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어요. 장애인이 주요한 생산과정에 직접 투입되어 실제적인 생산을 내도록, 그리고 회사의 주인이 되도록 한 거죠. 복사용지 업무도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고 불균형이 심각했던 두 개의 업무사이에 균형이 생기기 시작 하더라고요."

(C 기업 인터뷰 내용중)

④ 근로자 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은 초기 취약계층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를 위한 필수요건이기도 하다. 교육 및 훈련이 수반되어야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 고용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기 이전에는 일반인에 비해 교육을 받고, 이러한 교육이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취업이후에는 상황이 변화된다. 사회적기업 취업 경험을 발판삼아 이직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취업을 통하여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취업 후 사회적응을 통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두 교육 및 훈련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도 중증장애를 가진 직원이 많은 저희 같은 경우 가장 단순한 1, 2, 3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반복적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업무를 훌륭히 해내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처음보다 많이 좋아 졌지요. 2년이 지났을 때 일반 근로자

의 60~70% 수준의 생산을 하면 성공했다고 봐요. 실제 그 정도로 많이 올라오기도 하구요."

(K 기업 인터뷰 내용중)

이러한 점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사회적기업 취업을 원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사업 추진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고 답하였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했던 경험과, 특정한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과 업무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기업과 청년 실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희는 현재 매년 이윤의 10%를 환원해서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협동조합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기업도 계속해서 연계된 일자리가 유지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지요. 자기 몸집을 키우기보다 연관되어 있는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서 그 자체의 규모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면 근근이 유지해 가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를 거라고 봐요"

(A 기업 인터뷰 내용중)

⑤ 정부지원금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초기 창업기 기업 그리고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절실하다. 이 경우 기업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며 기업이 생산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증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찾아 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되어 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원이 없을 경우에도 이러한 기회자체가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저희는 중증장애인 고용이 중심이에요. 현재 주당 16시간 근무하면서 46만ㅜ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내는 초기 생산성을 비용으로 따지자면 46만원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한 달에 5만 원 이상 생산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지원이 필요한 거죠. 생산성으로만 따지자면 도저히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들을 간과하면 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들을 사회로 끌어들여 참여하게끔 해야 해요." (K 기업 인터뷰 내용중)

이러한 기업들은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는 3년차 이후의 시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3년 안에 사업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모델을 찾지 못할 경우 취약계층 고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립성 기반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바람직한 시도이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건강여건, 기업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여 등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이 높은 기업 등의 경우 인건비 지원기간 운영을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사료된다.

"(생략) 현재의 지원금 배분 방식은 바꿔야 하는 방향은 있지만 관행이 있어서 갑자기 그렇게는 안 되죠. 차츰 줄이고 노동통합형 같은 경우만 인건비를 지원하되, 그 경우는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을 기업이 대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3년 한정이 아니라 기간을 더 연장해 줄 수도 있는 거죠."

(C 기업 인터뷰 내용중)

"올해까지는 일자리지원금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해서 마이너스 없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일자리 지원금이 종료되기 때문에 대비책을 제조업이 라던지 다양한 부분에서 생산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해요."

(K 기업 인터뷰 내용중)

또한 일률적인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사업개발비에서 생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특히 고정자산 취득이 불가능하여 생산성 기반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시 말해, 장비 등을 구입하여 생산기반을 마련할 경우 지원금을 받는 동안 장비를 다루는 기술을 익히고 나면 지원금이 중단되어도 큰 무리 없이 그 장비를 가지고 생산을 해낼 수 있어 고용이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사업개발비는 다 마케팅으로 소진되는 비용이에요. 정부방침이 그래요. 고정자산 구입은 안돼요. 그게 사회적기업 초창기에 안 좋은 사례들이 많았어서 그렇게 되었어요. 시에 한 달에 두세 번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얘기하는 게 고정자산 이야기이고 그때마다 사유재산 이야기를 하죠. 맨 처음 받아 놓고 도망간 게 문제라면 인증을 강화해서 할 일이지 그렇게 되지 않을만한 곳까지 그렇게 하는 건 전략적으로 좀 그래요. 그렇다 보니 사업개발비로는 이런 홍보자료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사회적기업은 맨날 홈페이지 바꾸냐고. 할 게 그거

밖에 없거든요.”

(F 기업 인터뷰 내용중)

“(생략) 고정자산 취득이 안돼요. 사업개발비라면 고정자산 취득을 해주면 기업이 정말로 생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고용유지도 될 거구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인정이 안돼요.”

(K 기업 인터뷰 내용중)

2. 지속가능성 요인 간 관계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을 각각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각각의 요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 결과 도출된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질적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와 영향관계가 형성되는 순서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요인별 영향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결과 나타난 주요한 요인이지만 회귀분석 모형의 독립변수로는 포함이 어려운 판로확대, 협의체 참여 등과 같은 요인들을 일부 추가[38]하였다.

지속가능성 요인 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하였다.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현상, 중재조건, 작용과 상호작용 전략, 결과 순으로 지속가능성 요인을 재정리 하였다. 모형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현상과 결과를 중심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인과적 조건은 현상을 나타나게 한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창업단계 또는 인증단계에서의 기업여건이라 할 수 있다. 맥락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라는 근본적 토대아래 현상이 나타나도록 영향을 미친 특정한 조건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와 이에 따른 정부지원이 포함된다.

현상은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기업 매출액과

38) 이는 〈그림 5-3〉에서 괄호로 표기하였다.

사회적 목적 실현 수준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중재조건은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경영 전략(작용 또는 상호작용)이 있도록 유도한 특정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은 수익창출과 사회적 목적 실현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인 지속가능성을 갖추게 된다. 이를 각각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 고용과 기업 자본금은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한 인과적 조건에 해당한다. 즉,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유럽에서는 노동통합형이라 불리는 일자리 창출형으로 이 유형에서는 취약계층 고용이 사회적기업 인증의 기본적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아직까지 영세한 수준으로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도 어느 정도의 자본금 규모가 형성되어야 면허등록, 교육 및 훈련 등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갖추게 되는데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둘째, 맥락적 조건에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현장업무 투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된다. 취약계층 고용 또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내용과 수준을 토대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게 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됨과 동시에 3년간 인건비 지원 등 정부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간접적 지원을 받게 된다. 기업에서는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이들의 생산성 증진을 통하여 매출을 향상시키고자 본격적인 실무 교육과 훈련을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셋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에 비해 생산성이 낮았던 취약계층의 생산성은 향상된다. 이는 실제로 취업 당시 생산성이 매우 낮았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공정의 단순화와 반복 교육을 통하여 생산성이 2년 동안 일반인의 7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 나타났다. 기업여건에 따라서 기업이 당초 보유한 자본금, 그리고 정부 인건비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생산활동을 한 결과, 기업은 매출액

이 향상되기도 하고 저하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목적 실현이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출액이 저조한 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 또는 매출액 등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동참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다. 인터뷰 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3년이라는 기간 내에 당초 계획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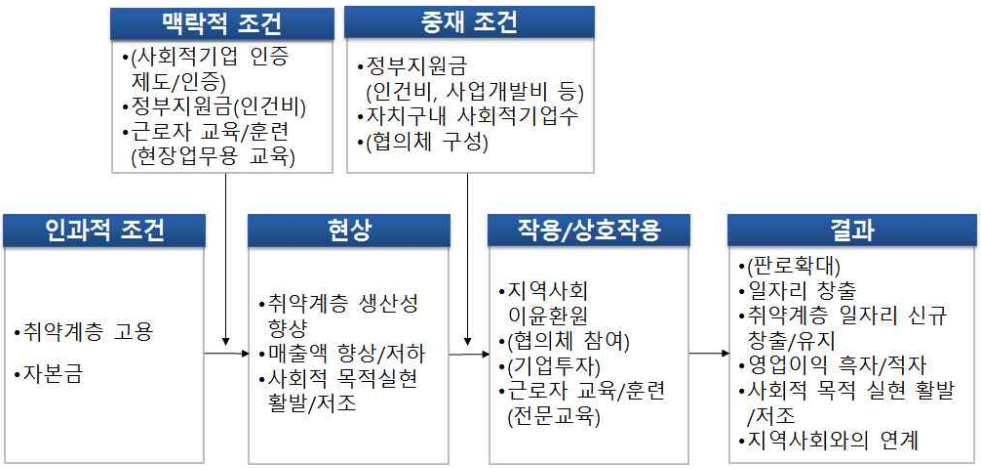
넷째, 사회적기업 여건에 따라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개발비와 전문인력 지원 등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 수도 매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곧 해당 지자체 내의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협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증가하는 지역 내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자립성 확보를 위하여 구성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다섯째, 사업개발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증가하는 해당 지자체 내 사회적기업 수와 같은 요건들이 작용하여 사회적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고 경제적 자립성과 동시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본격화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회 이윤환원이다. 이는 사회적 목적 실현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서는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 협의체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일부 기업의 경우 지역사회 이윤환원 대신에 우선적으로 기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기업 내부에 투자하기도 한다. 재정적으로 안전궤도에 진입한 이후 본격적인 이윤의 사회환원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또한 기업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하여 당장의 실무수행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근로자 전문교육 또는 훈련을 시행하기도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이윤환원 전략을 활용한 결과 공공시장 판로가 확대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은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일정한 매출을 꾸준히 기록하게 되고 영업이익이 창출 될 때에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고용이 가능해 진다.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상 유지가 가능할 경우 현재 고용된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하여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간 영향관계를 정리한 결과, 사회적 목적 실현과 수익창출 사이에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 그 이외의 사회적 목적 실현활동 등을 통하여 인증을 받게 되고 동시에 재정지원을 받게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 내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하여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는 다시 기업 매출액 향상으로 연결된다.



※ 괄호 안의 내용은 회귀분석 모형의 독립변수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터뷰 조사 결과 도출된 독립변수와 함께 고려되고 있는 내용으로 요인 간 관계 설명을 위하여 추가하였음

<그림 5-3>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 간 관계

이에 따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의 활동은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되고 지역사회 이윤환원 등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적기업의 고정적인

공공시장이 형성된다. 즉,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목적 실현과 수익창출이라는 두 가지 상충적 목적이 본격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된다. 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협의체 구성은 사회적기업이 고정적인 공공시장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밀접히 연계되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협의체 조직과 적극적 참여는 사회적기업 성장단계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본격화 되는 주요 수단이자 기업의 경영환경이 안정화 또는 확대되는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3. 사회적기업 성장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 간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그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에 따른 범주화, 과정분석 등을 거쳤다. 근거이론의 마지막 단계는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핵심범주를 도출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핵심범주는 이 연구에서 실시된 질적연구 결과 형성되는 이론의 핵심이 된다.

근거이론에 의한 양적연구의 결과로서 이 연구에서는 핵심범주를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선택하였다.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구분을 적용할 때 성숙기와 성장기의 기업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바로 지역사회와의 연계이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가고 있거나 기 확보한 성숙기 기업이 가지는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목적과 이윤창출 간의 밀접한 연계이며 이 연계가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 구분은 제품수명주기이론에 근거하였다. 단, 성장기 단계를 개발기 단계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크게 성장기와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성장기와 성숙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사회적 목적 실현의 적극성과 매출액 수준을 활용 하였다. 다음으로 성장기와 성숙기 단계의 기업 현황을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하여 지속가능성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5-4> 성장기와 성숙기 기업 분류

구분	사회적 목적 실현 적극적	사회적 목적 실현 소극적	기업 성장단계
매출액 고	A, B, C, D, E	F	성숙기
매출액 저	K	G, H, I, J	성장기

※ 인터뷰 대상 기업은 크게 A~E까지의 그룹과 G~J까지의 두개 그룹으로 명확히 구분이 된다. 이 외에 F와 K기업이 별도로 각각 구분되나, 이는 크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매출액이 높은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하므로 A기업부터 F까지의 기업을 성숙기로, K부터 J까지의 그룹을 성장기로 크게 구분하고자 한다.

그 결과 사회적 목적 실현에 적극적이며 매출액도 높은 그룹과 정 반대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소극적이며 매출액 수준도 낮은 두 개의 그룹으로 양분되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은 소극적이나 매출액 수준이 높고, 사회적 목적 실현이 적극적이나 매출액 수준이 낮은 기업은 각각 1개씩으로 성장기와 성숙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포함하였다. 〈그림 5-3〉에서와 같이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들은 양적연구를 위한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변수에 포함된 변수와 관련된 현황자료들을 포함하여 〈표 5-5〉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 결과, 성숙기와 성장기 기업 현황에서 다음과 같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성장기 기업의 경우 인증 3년 미만의 기업들로 성숙기 기업에 비해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다. 또한 성장기 기업은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고용을 높은 비유로 유지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사업개발비의 경우에는 성숙기에 접어들수록 기업의 특화 등을 위하여 그 비중이 높아질 필요가 있으나 현황은 성숙기보다 오히려 성장기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전략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훈련은 성장기와 성숙기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것으로 취약계층 일인당 교육 또는 훈련비 금액은 성장기 기업이 크지만 전체적인 교육과 훈련 수혜인원은 성숙기 기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은 성숙기 단계의 기업일수록 지역사회 이윤환

원과 사회적 목적 실현 관심도가 성장기 기업과 구별되게 높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 내 사회적기업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는 현황은 유사한 수준이나 협의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성숙기 기업일수록 기업경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고정적인 공공판로를 개척하여 이윤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과의 연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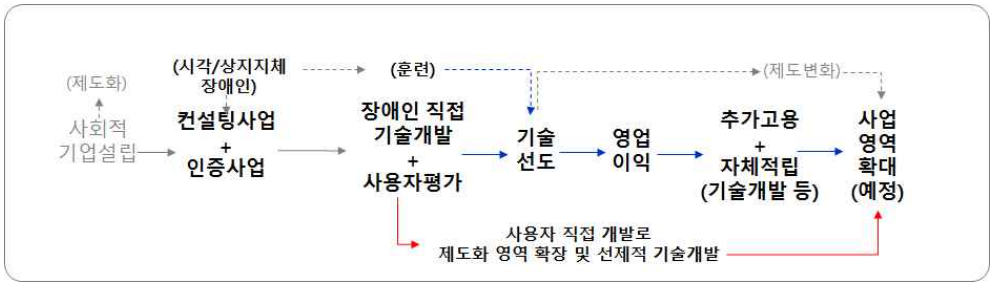
<표 5-5> 성장기와 성숙기 기업 현황 비교 2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구분	지속가능성 주요 요인	지속가능성 세부 요인	성숙기	성장기
인과적 조건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고용(종사자수)(인)	53.7	14.8
		취약계층 비중*(%)	51.6	62.2
	자본금	자본금(근로자 1인당 자본)*(천원)	16,487.8	13,095.3
맥락적 조건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근로자1인당 정부지원금)(천원)	2,927.9	6,133.7
		정부지원금(인건비비중)*(%)	20.9	53.7
	근로자 교육/훈련	근로자 교육/훈련 (취약계층1인당 교육훈련비)*(천원)	166.8	198.4
		사업아이템 차별화(유무) (특화정도/계열화효과 유무)	0.7	0.8
		사회적기업 인증(인증년차)(년)	4.2	2.6
현상	취약계층 생산성 향상	취약계층 생산성 향상 (상(3), 중(2), 하(1))	3.0	1.8
	수익창출	매출액*(천원)	3,397,150.8	765,998.0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 실현 관심정도 (상(3), 중(2), 하(1))	2.8	1.8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천원)	1,425.5	1,269.1
		부채(천원)	23,784.7	11,974.3
		기업연령(년)	13.2	11.4
중재조건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사업개발비 비중)(%)	6.4	7.0
		정부지원금 (1인당 인건비외 지원)(천원)	1,661.8	1,896.7
	자치구내 사회적기업수	지역 내 사회적기업당 인구수*(인)	50,658.6	38,997.9
	협의체 구성	협의체 및 지원센터 설립(개)	1.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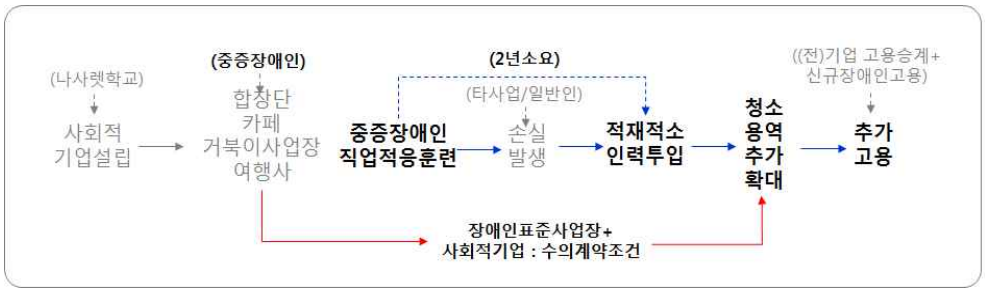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구분	지속가능성 주요 요인	지속가능성 세부 요인	성숙기	성장기
작용/상호 작용	협의체 참여	협의체 참여도(상(3), 중(2), 하(1))	2.8	1.2
	지역사회 이윤환원	지역사회 이윤환원*(천원)	197,702.5	158,604.2
	기업확장	기업투자(천원)	296.4	84.6
	근로자 교육/훈련	직원교육·훈련 (근로자 전체 교육·훈련 수혜인원)*(인)	325.0	19.0
결과	일자리 창출	전체 고용자수(인)	100.8	23.2
		신규 고용(전체)(인)	25.3	4.6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취약 신규고용)(개)	11.7	3.4
	영업이익	종업원1인당 영업이익(천원)	238.4	-2,340.3
	사회적목적 실현	지역사회 이윤환원 (취약서비스+이윤재투자+지역공헌/총액) (천원)	506,229.3	237,602.8
		지역사회 이윤환원(종업원1인당)(천원)	11,051.2	7,809.0
	판로확대	판로확대(자원연계 수)(개)	6.5	0.6
		판로확대(자원연계 금액)(천원)	3,025,166.3	152,063.8
		판로확대(자원연계 매출액 대비 비중)(%)	117.8	17.0
		외부 기부 등 (종업원 1인당 영업외이익)(천원)	943.1	625.2
	기타(경영방식)	의사결정구조(회의 개최 건수)	21.0	4.6

* 양적연구를 위한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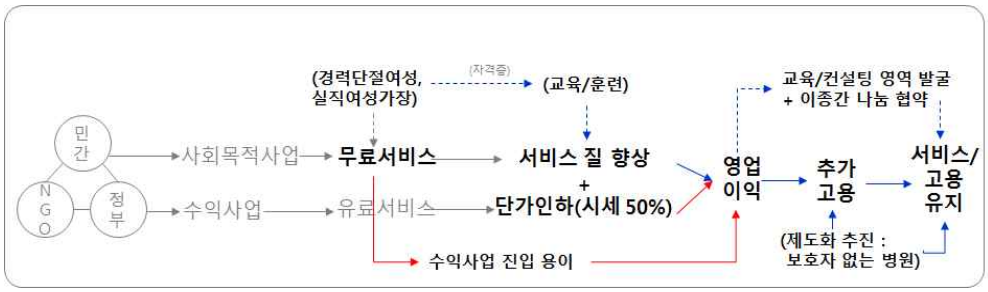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이 성숙단계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긴밀해 지는 것은 각 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의 성장과정을 도식화 한 〈그림 5-4〉부터 〈그림 5-7〉까지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5-4〉와 〈그림 5-5〉는 성장기 기업 사례를 도식화 한 것이며 〈그림 5-6〉과 〈그림 5-7〉은 성숙기 기업의 사례를 도식화 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지역협의체 구성, 이종 나눔, 지역사회 이윤환원 등을 통하여 서비스 또는 고용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그림 5-4〉와 〈그림 5-5〉에서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확대와 추가인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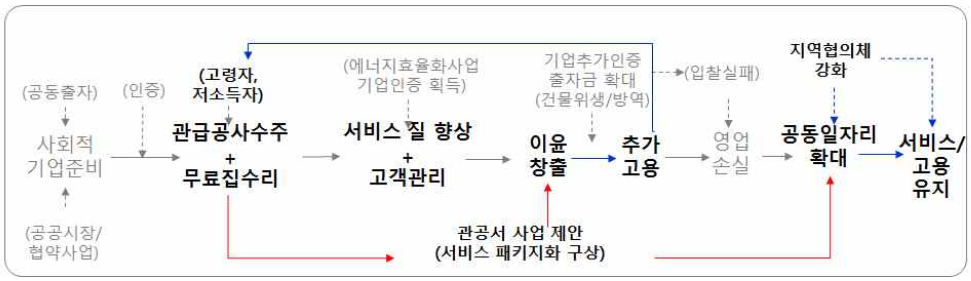
<그림 5-4> 사례분석(예) : 성장기 기업 1



<그림 5-5> 사례분석(예) : 성장기 기업 2



<그림 5-6> 사례분석(예) : 성숙기 기업 1



<그림 5-7> 사례분석(예) : 성숙기 기업 2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활용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네트워크 조직 즉, 협의체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가? 인터뷰 조사 결과, 사회적기업 성장기에 조직되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하나의 단체성격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 하나의 기업이 개별적으로 지자체를 대응하는 것보다 여럿의 목소리를 모아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동일 목적을 가진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기업이 입지한 해당 지자체 공공시장에 쉽고 안정적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 기업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지자체에 발언권이 많아지게 되죠. 00시에서는 2013년에 사회적 기금 조례를 만들었고 2억씩 5년간 총 10억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금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위한 인큐베이팅이 가능하게 되고, 지자체 내에 있는 대기업들로부터 모금도 가능해 지죠."

(A 기업 인터뷰 내용중)

"일반적으로 관급공사 경쟁입찰은 최저가 입찰방식이죠. 이러한 최저가 형태라면 취약계층들의 생산성이 아무래도 100이 아니다 보니 인건비적 측면에서도 불리해서 사회적기업은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협의회 차원에서 입찰방식을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입찰, 공모방식에 의한 입찰 등으로 전환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F 기업 인터뷰 내용중)

둘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간 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일례로, 00시 사회적경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활동계획의 하나가 바로 '이종 나눔 판매' 였다. 여기서 이종 나눔 판매란, 사회적 경제 조직 내의 타 기업 간에 생산과 소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간에 서로 필요로 하는 생산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 역시 고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자본과 고용 인력에 대한 문제로 공공조달에 진입이 불가능했던 기업들이 연계를 통하여 가능해지게 된다.

"저희 구에는 현재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있고 17개 기업이 소속되어 있어요. 여기서 올 해의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이 바로 사회적 경제 주체 간 내부시장 활성화 예요."

(F 기업 인터뷰 내용중)

셋째, 사회적 목적 실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함이다. 하나의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사회 이윤환원의 규모는 작으며 분야도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업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경우 단편적으로 제공하던 사회서비스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이 가능해 진다.

<표 5-6> 2013 경영공시 기업 해당지역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 구축현황

지역		사회적기업 관련 지역네트워크 (기초 지자체 단위)
서울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강서구	강서구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의회
	금천구	금천사회경제연대
	노원구	노원사회적경제협의회
	동대문구	동대문구사회적경제협의회
	마포구	마포구사회적기업협의회
	성북구	성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
	영등포구	영등포구사회적경제협의회
	용산구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
부산		부산사회적경제협의회
	연제구	연제구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계양구	인천계양구사회적기업협의회
	연수구	연수구사회적경제협의회
	남구	인천시남구사회적기업협의회
	중구	인천중구사회적기업협의회
광주		광주권역사회적기업협의회
	동구	광주권역사회적기업협의회
	북구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울산		울산사회적기업협의회
	북구	울산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
	남구	울산남구사회적기업협의회
	중구	사회적기업울산중구협의회

지역		사회적기업 관련 지역네트워크 (기초 지자체 단위)
경기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구리시	구리시 사회적기업협의회
	남양주시	남양주사회적기업협의회
	부천시	부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성남시	성남사회적기업협의회
	수원시	수원시사회적경제협의회
	시흥시	시흥시사회적기업협의회
	안산시	안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
	안성시	안성시사회적경제협의회
	화성시	화성시사회적경제협의회
강원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원주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춘천시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북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충주시	충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천안시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전북		전북사회적기업네트워크
	전주시	전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전남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
	광양시	광양시사회적기업협의회
	나주시	나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여수시	여수시사회적기업협의회
경남		경남도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4절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도시재생

근거이론을 적용한 양적연구 결과 이 연구의 핵심범주를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선택하였다.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핵심범주의 내용을 확대할 경우 사회적기업과 도시재생 분야를 연계·적용이 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긴밀히 형성되며 지역의 여러 가지 쇠퇴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주체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영국과 일본 등에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영국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쇠퇴지역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검토된 바가 없다. 인증 사회적기업에 관한 지역별 현황을 위주로 분석하고 있을 뿐 이와 공간측면에서 쇠퇴지역의 입지를 연계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한 쇠퇴진단 지표 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2013년 12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2014년 4월 도시재생 선도지역 시범사업 추진 시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쇠퇴지역과 사회적기업의 입지와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쇠퇴지역 진단기준[39]을 활용하여 전국 쇠퇴지역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 읍면동 인구, 사업체 등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07년 이후 현재까

---

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 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지 인증된 총 1,052개 기업의 입지를 조사하여 쇠퇴지역 분석 결과 위에 중첩시켰다. 그 결과, 총 1,052개 기업 중 37%에 해당하는 389개의 기업들이 쇠퇴지역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입지가 주로 쇠퇴지역에 분포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8> 우리나라 쇠퇴지역 현황과 사회적기업 입지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의 입지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쇠퇴지역이 가지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기업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추진 부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기업 정책과 쇠퇴문제를 다루는 도시재생 정책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장기 실업문제, 사회적 배제 문제, 물리적 환경쇠퇴 등을 종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회적기업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에서 추구하는 경제적·사회적 재생과 함께 물리적 재생을 종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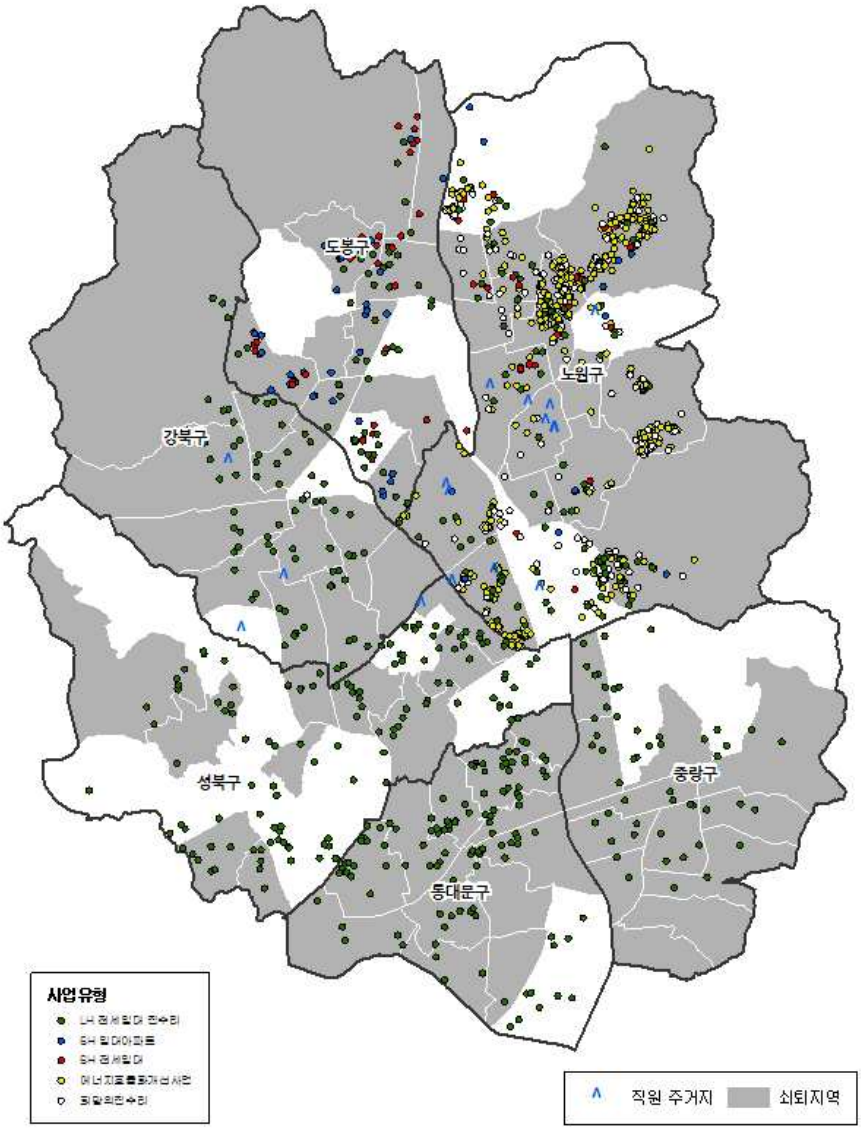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어떠한 특성과 어떠한 사업내용이 도시재생과 연관성이 있으며, 어떻게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재생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노원구의 ○○사회적기업은 2010년도에 설립되어 2011년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선정 되었고 2013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이 기업은 노원구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강북구, 도봉구 등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취약계층주택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체 인원 36명 중 58%에 해당하는 21명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였다. 그리고 정규직의 50%를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고용하고 있다.

<표 5-7> ○○기업 취약계층 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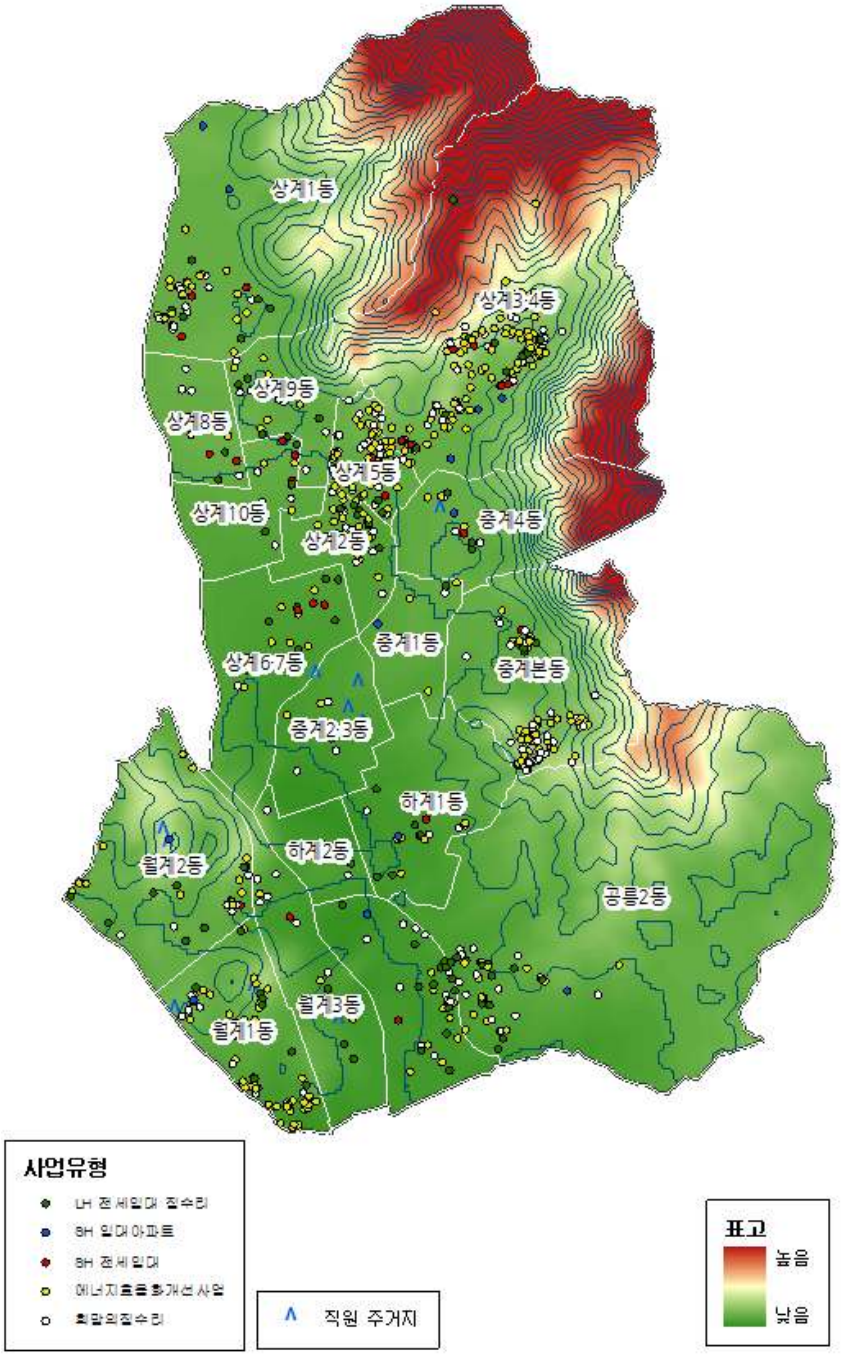
구분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취약계층	일반인	소계	취약계층	일반인	소계	취약계층	일반인
사회적기업 인증전	8	4	4	8	4	4	0	0	0
사회적기업 인증 후	54	34	20	33	23	10	21	11	10
증감	46	30	16	25	19	6	21	11	10

※ 자료 : ○○기업 내부자료

이 기업은 현재 노원구를 중심으로 노원구청 희망 집수리(210가구), 노원구청 저소득층 지붕수리(145가구), 서울형 집수리(760가구),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615가구), 저소득층 무료집수리(56가구)를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받아 하고 있다. 제공하고 있는 사업내용 자체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에 해당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업 인력을 활용하여 사전 계약한 공사 외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무료 시공을 해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노원사랑봉사회 사무실 공사, 한국장애인복지지원협의회 월계동 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릉동 분회, 노원구 아파트 마을공동체 구 협의회 등에 기부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지역사회 이윤환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9> ○○기업 서비스 제공지역 및 재생이 필요한 쇠퇴지역



<그림 5-10> 해당 기초지자체에서의 ○○기업 사업추진 실적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그리고 나아가 도시재생 수단으로 의미를 가지는 이유에 대하여 사례대상 기업의 성장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먼저, ○○기업은 고령자와 저소득층을 주로 고용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설립과 동시에 인증을 받았다.

이 기업이 위치한 지역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무기한 계속되는 실업상태 유지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지역과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었다. 이 지역은 물리적 환경의 쇠퇴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외부의 지원 없이는 빈곤 및 노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지역에 소규모 이지만 사례기업이 입지하게 되면서 취약계층이 직원으로 고용되기 시작하였다. 기초생활수급 또는 기타 정부지원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된 경제적 재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기업은 현재 취약계층 고용자 중에서도 고령자를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일의 성격상 몸을 써서 하는 일이다 보니 장애인 채용은 현실상 어렵고 저소득층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저희는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이지만, 다양한 서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그냥 영리추구를 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르잖아요."

"(중략) 우리는 어쨌든 일반기업과 다르게 사회공헌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안하면 사회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직원들이 60대가 기본이고 75세까지 있어요. 최근에 직원을 뽑으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일하는 60~70대는 아직도 청년 같아요.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다 젊으신데도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이 사회목적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정부는 고스란히 노인복지정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인터뷰 내용중)

두 번째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취약계층거주가구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무료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고지대에 독거노인 가구가 밀집한 이 지역에는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가구가 많이 분포해 있어 일거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대상 또한 많다. 대부분의 독거노인 가구는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어 이러한 생활이 지속화 될 경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개선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경영이념과 전략을 통하여 "주거"의 의미를 부각시키며 물리적 재생과 함께 사회적 재생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 근처에 흔히 말하는 달동네가 많이 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대부분이구요. 이런 분들은 주거환경 자체도 열악하고 특히 열... 추위와 더위에 무방비예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일들을 주로 하죠."

"(중략) 예산을 받고 하는 사업들이지만 실제로 하기로 한 사업 이외에 예를 들면 서울형 집수리 같은 경우, 가구당 한도 100만원 내에서 도배장판을 하고 오는데 그 외에 수도꼭지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시면 예산 외로 추가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예산사업하고 무료 사회서비스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 외에 노원구의 경우에는 노원구청과 협약을 맺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 내지는 인력을 활용해서 무료로 사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중략) 취약계층은 외부와의 접촉이 많지 않아 폐쇄적이거나 삶 자체가 적적한 사람들이 많아요. (중략) 당사자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고 이것은 일을 넘어서 '교류'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상처 받았던 취약계층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거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집이라는 게 잠만 자는 곳이 아니잖아요."

(인터뷰 내용중)

세 번째로, 직원 중 다수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밀집 거주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영리기업과 다른 방식과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생산자이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객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기업의 인지도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직원들은 우리 동네를 살기 좋게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게 되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이 향상된다. 자연스럽게 지역에서의 참여가 확대되는 사회적 재생이 추진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생략) 우리는 직원 자체들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활을 잘 알고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예요. 당사자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며 이것은 일을 넘어서 '교류'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상처받았던 취약계층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것이 진정한 '주거환경'이고요."

(인터뷰 내용중)

이 기업은 또한 동네 지물포 보다는 전문성을 갖추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인테리어 회사보다는 저렴하다는 경쟁력을 가진 이러한 기업의 인력관리와 사업관리를 통하여 지역과 기업을 모두 필요한 틈새시장을 발굴하게 되고 공공시장 판로가 확대[40]되기 시작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예산으로 인해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피하는 일반 기업들로 인하여 비용대비 적합한 기업을 찾는데 애로사항을 겪으며 쇠퇴의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그동안 미루어 왔던 물리적 재생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생략) 우선은 착한소비 같은 윤리적 소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일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같은 기업은 공공의 일을 수주하면서 대강하면 안 되고 최대한 만족하게끔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것저것 인증이나 전문기술 자격요건을 많이 갖춰두고 있어서 그냥 동네 지물포보다 싼 가격은 아니지만 기술력은 낫고 그렇지만 이름 있는 인테리어 회사 보다는 저렴하니까 찾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 중간영역에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에서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죠. (중략) 요즘은 어디서 들었는지, 우리 기업이 입소문을 탄 건지 일반상가와 주택에서 시공을 해달란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중략) 구청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아니까 협약형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해주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일정 전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름 있는 회사보다는 저렴하고 또 우선 직원들 자체가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니 좋죠."

(인터뷰 내용중)

---

40) 공공판로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내 인지도가 상승하여 별도의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일반 건물 소유주들로부터 사업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네 번째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저장강박을 앓고 있는 노인 무료 집수 과정에서 산더미 같이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필요한 재료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룸쉐어링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 외에도 지역 내 재활용 사회적기업과 협업을 구상하게 된다. 깨끗한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의 치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사 및 간병과 교육 및 멘토링 등의 사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한다.[41]

"저장강박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나가보면 눈뜨고 볼 수 없는 환경을 많이 보게 되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 중에 저장강박이 있어서 물건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쓰레기란 쓰레기는 죄다 모아놓고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문제다 싶어서 구청에 제안을 해서 이러한 가구들을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탁받아 하면서 인건비를 그 부분으로 일정 부분 충당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료로 집수리 하고 그 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주거"라는 것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진 독거노인 가구에 룸쉐어링 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독거노인 가구를 수리하고 나면 공간도 넓어지고 방이 하나 정도씩 여유가 생겨요.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을 "주거"라고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적적함을 없애고 집에만 있지 말고 바깥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그래서 고심 끝에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에게 월세 방을 내놓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반 대학생들을 방값을 아주 싸게 있을 수 있어서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젊은 손자 같은 친구가 드나들어서 적적함이 없어서 좋고.. 젊은 학생이다 보니 간단하게 고장이 나거나 손이 필요한 부분은 알아서 고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다 싶어서 추진하게 됐어요.

이렇게 한 마디로 복덕방같이 중개를 해주고 우리 회사 인력을 동원해서 이사를 도와주고 도배와 장판을 무료로 시공해 주고 있어요."

(인터뷰 내용중)

41) 가사 및 간병과 교육 및 멘토링 까지 연계한 패키지형 사업은 현재까지 실제로 추진된 것은 아니며 구상 및 검토단계에 있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더라도 단편적인 물리적 환경개선만이 가능했었으나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이러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수의계약 가능한 소규모 사업들은 이 기업에 위탁하여 기업은 별도의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적인 고객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업무의 만족도가 상승하게 된다.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구청에서 협약사업을 받아서 하게 되요.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있고 그것 말고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구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등 구청이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이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도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개보수를 수의계약 형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인터뷰 내용중)

다섯 번째로, 지역 거주민으로서 그리고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취약계층 수요가 있으나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지자체 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제안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 과정에서 해당기업의 역량만으로 부족할 경우 가능한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협의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연계가 이루어진다. 순환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 일을 하다보면 우리가 구청에 이러한 봉사일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일을 나가보면 저희는 보이거든요. (중략) 이건 정말 문제다 싶어서 구청에 제안을 해서 이러한 가구들을 관리할 것을 저희가 제안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탁받아 하면서 이러한 가구들을 관리할 것을 제안했어요. 사실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기는 어려워요. 저희야 여기 살고 있고 또 여기서 일을 하니까 알고 있는 거죠." (인터뷰 내용중)

<표 5-8> ○○기업 지속적 성장과정에서의 도시재생과의 연관성

지자체 내 쇠퇴지역 현안 문제	기업 성장과정		도시재생 분야
·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소외 문제 심각) · 장기 실업상태 유지로 지역 전체 활력 저하(그러나 대안없음) · 기초생활수급 또는 기타 정부지원으로 최소한의 생활 유지 ·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빈곤 및 노후의 문제 해결 불가능	성장기	·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 사회적기업 인증 · 취약계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업 추진 · '주거'의 의미 강조	· 경제적 재생
· 특히, 독거노인 가구 밀집 ·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취약계층 다수(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대응 필요)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담 및 특화 → 서울시, SH, LH 위탁사업 수행 → 사업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무료수리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재생 · 물리적 재생
· 지자체 예산의 한계,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일반기업 등 문제로 노후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연 · 추진 가능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비교적 양호한 사업 위주)		· 직원 업무 교육 및 훈련 (해당지역 거주 취약계층 고용) → 영리기업과 다른 업무방식 (소비자(직원들의 실제 이웃 이기도 함) 배려와 이해로 융화) → 소비자이자 생산자의 입장에서 틈새시장 발굴 & 공공판로 확대	· 물리적 재생 · 사회적 재생
·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환경을 개선하더라도 단편적 물리적 환경개선만 가능(근본적 문제 해결 불가능), 유사한 내용의 예산 반복적 투입 & 성과 미미 · 쇠퇴지역 관리비용 증가 예상 ·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 증가	성숙기	· 지역내 사회적기업과 연계사업 추진 → 추진 구상중인 연계형 사업의 예시: 저장강박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가구 무료 집수리 (노원구 재료비 지원) + 재활용 업체 + 가사 및 간병 서비스 + 교육과 멘토링 등 → 공공시장 판로확대(수의계약 또는 수탁사업 증가) → 고용인원 유지 또는 신규 고용	· 사회적 재생 · 경제적 재생 · 물리적 재생
· 공무원 순환근무로 현황에 대한 심층적 파악에 한계 · 복합적인 도시 내 쇠퇴지역 문제해결의 어려움 봉착		· 취약계층 수요가 있으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추진되고 있지 않는 사업을 해당 지자체에 제안 → 기업의 신규 사업영역 확장 → 가능한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연계 및 협업체계 구축	· 물리적 재생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사례에서는 그동안 공간위주로 추진되었던 도시재생과 일자리, 즉 사람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고용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정책구상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적 수단으로 사회적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합적 도시재생 정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공간(place)과 사람(people)을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간과 사람(일자리)을 연계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고 건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2007년부터 인증을 시작하여 올해로 8년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끊임없이 자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생산·판매와 이를 통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사회적기업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자립적 기업이라고 하기 에는 생산과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수준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자립성을 상실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 해외국가에서 통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적 수단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영향요인들은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과의 연계는 어떻게 강화되며, 지역에서 사회적기업들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연구질문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통합하는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는 최

근 들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양한 세부 전문 분야에서 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한번쯤 현장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모두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현장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인들은 관련이론 연구결과 도출된 요인과 비교·분석한 뒤, 양적연구를 통하여 재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다음 이 결과를 토대로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요인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외 선행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과 수익창출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수단 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이 사회적기업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이윤환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이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수단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의 부재에서 온 자료의 부정확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체적 개념과 예시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자마다 사회서비스 제공의 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그 수준도 각기 다르게 평가하여 기업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분석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도출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이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어떠한 영향관계를 형성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발기를 포함한 성장기 단계에서는 인건비 중심의 정부 지원금, 교육 및 훈련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성장기 단계의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3년이라는 시간동안 다양한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생산성 향상에 매진한다.

다음으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경영이 안정화된 사회적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이윤환원 활동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이윤환원은 결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성숙기로 접어들면서는 사업개발비 중심의 정부지원금을 필요로 하며, 사업개발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 매출액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역사회 이윤환원을 유지시켜 나간다.

주목할 점은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성장기에 이르면 사회적기업들은 지역사회 이윤환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연계가 긴밀해 진다는 점이다. 지역의 공공시장 진입을 위하여 협의체 등을 형성하고 그 결과 산출된 영업이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지역사회에 환원된 이윤은 지역에서 시급해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지역의 현안문제는 대부분 물리적 쇠퇴문제, 소외와 취약계층 문제, 장기 실업문제 등으로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되는 분야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가 상호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계기가 된다.

지역이 당면한 문제이자 사회적기업 수요가 있는 분야들은 도시재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경제적 쇠퇴, 물리적 정주환경의 낙후, 사회적 취약계층 문제는 쇠퇴지역의 당면과제이자 도시재생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적인 주제이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과 도시재생을 하나의 맥락에서 보고 물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연계한 정책을 추진해 오지 않았지만, 정책의 효율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사회적기업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 사이의 선순환 연계체계 구축, 그리고 이를 도시재생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확대·적용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은 초기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며,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이 역량강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한다면, 사회적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이윤이 다시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되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향후 과제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두 가지 분야의 핵심 현안문제가 두 분야 간 연계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이는 윈윈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에서는 기존의 물리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난 사회적·경제적 측면까지의 재생을 포함하는 종합적 재생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였다. 또한,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기업으로서 자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였다.

각각의 분야가 가지는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공간'과 '사람(일자리)'간의 연계방안과 수단에 주목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기업이 두 분야 간 연계를 위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쇠퇴지역에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쇠퇴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계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쇠퇴지역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재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으며 사회적기업 경영측면에서도 지역 내에서 안정적 판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고용유지와 신규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윈윈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연구 전반에 걸쳐 강조된 바 있지만 '공간'과 '사람'의 연결이 종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그리고 핵심연계 수단은 바로 사회적기업 이었다. '공간'과 '사람'은 그 동안 별개로 인식되어 개별 정책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두 부문을 다루는 정책 연계를 통하여 각 분야 정책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 해결이 가능하며 나아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큰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공간'을 다루는 부처별 정책과 '사람(일자리)'를 다루는 부처별 정책간 연계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연구에서 통합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요인과 요인 간 관계 등

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 분야에서 현재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개별 기업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가 가지는 이론연구와 심층사례 연구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적 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는 새로운 연구방법론(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셋째, 지금까지 개별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분야 간 연계 가능성을 규명하였다. 넷째,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경영의 난제로 작용해 왔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수익창출간의 상호 긍정적 관계에 대해서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첫째, 이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공시에 참여한 81개 기업 현황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인증된 1,052개의 기업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는 기업별 현황 데이터의 한계로 다양한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변수도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기업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먼저 사회적기업 공식 현황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의 의미와 그 실현 수단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목적 실현 수단에 대해 개념을 정립하고 그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현황자료를 구축할 때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현재 사회적기업이, 그리고 도시재생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양한 통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Gujarati, 2009. 계량경제학 제5판. 박완규·홍성표 옮김. (주)지필미디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이 고용창출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8.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4.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길선·이원준·권성현, 2003. “가치사슬 성과측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서강경영논총」, 서강대학교경영연구소, 14(2)

김대환, 1998. 발전경제학, 경문사

김순양, 2010. “사회적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정부지원을 위한 기준 설정 및 행정체계확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2)

김종수·홍성효, 2013. “충남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도시행정학회보」, 26(2): 97~178

김태영, 2012.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정신”, 「도시행정학회보」, 25(3): 31-64

김학실, 2012.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 탐색”, 「지방정부연구」, 16(1호)(2012 봄)

김혜원, 2011.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원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8(1)

마이클 포터 지음, 2001. 전략경영의 대가 마이클 포터의 경쟁론, 김경묵·김연성 공역, 세종연구원.

박길성·이택면, 2004. “효율성, 권력, 그리고 ‘기업사회학’ 거래비용이론과 자원의존이론의 대화, 「한국사회학」, 38(6)

박대영, 서범준, 정창무, 2009. “수도권 제조업의 공간적 분포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4(6호): 147~159

박삼옥, 2002. 현대경제지리학. 서울:아르케

박성현, 1998. 회귀분석, 민영사

박종철, 2010.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지속가능경영”.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2010권 1호: 1~18

서종균·신현방·임정민, 2007. 영국의 사회적기업 방식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연구, 토지주택연구원

성백남·정갑영, 2011. 미시경제학, (주)박영사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책방

양준호, 2011. 지역과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기업, 도서출판 두남

OECD 대표부, 2006. OECD 국가의 사회적기업과 시사점

오미옥, 2009.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연관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31: 79-98

이영범·박성우·남승연·정무권, 2012. “근거이론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지속발전 모형에 대한 연구: 서울지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호): 355-387

이윤재, 2010. 사회적기업 경제. 탑북스

이종원, 2007. 계량경제학. 박영사

이준구,1998. 미시경제학. 법문사

이현철·김영천·김경식, 2013. 통합연구방법론, 경기 파주:아카데미프레스

이희연·노승철, 2012. 고급통계분석론-이론과 실습, 법문사

임혁백 외, 2007.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한국형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모색, 송정문화사

장우진, 2011. “지역성에 기반한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연계의 기대효과”,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 13(1)

장원봉, 2005.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개념구성에 관한 연구: 유럽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원봉, 2006.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장윤배, 2009. 도시의 재생, 경기개발연구원

Janelle A. Kerlin, 2010. “사회적기업 모델과 배경의 비교”, 「사회적기업연구」

Juliet Corbin and Anselm Strauss 공저, 2009. 근거이론, 신경림·김미영·김정선·신수진·강지숙 공역, 서울:현문사

전윤구, 2008. “일본 지역고용촉진에 관한 법제도”. 경기대학교 「법학논총」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6호: 65-88

정관영, 2013. 이제는 사회적경제다, 공동체

정규진·서인석·장희선, 2013.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 제22권 1호(2013.3): 171-202

정준화, 2013. 계획과 예산의 연계에 관한 연구-국가정보화 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책학박사학위논문

조극래·김동영, 2003. 19세기 유토피아 사상가들의 이상적 커뮤니티 이론에 관한 연구

주성수, 2010. 사회적 경제 이론, 제도, 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진영환·김진범, 2010. “도시재생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우리나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와 도시재생사업에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제65권(2010.6): 181-196

채종헌, 2011.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최조순·김태영·김종수, 2011.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의 역할”, 「도시행정학회보」, 한국도시행정학회, 24(1)

통계청, 2012. 기업생멸 행정통계 개발결과 보도자료(2012.12.27.)

Philip McCann, 2006. 공간적 접근법을 이용한 도시 및 지역경제학. 최병호·권오혁·김명수 옮김, (주)시그마프레스

하영진, 2009. “샤를 푸리에의 유토피아”, 「현대사상」, 현대사회연구소, 제5호

한국노동연구원, 2006. “이탈리아 사회적기업”, 「국제노동 브리프」

홍석빈, 2009.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 「LG Business Insight」, Weekly 포커스

홍성우·장우진, 2011. “도시재생 영역의 중요도 분석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탐색”,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 13(1)

Borzaga, C. & J. Defourny, eds., 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Briga Hynes, 2009. “Growing the social enterprise-issues and challenges”, *Social Enterprise Journal,* 5(2)

David Wheeler · Kevin Mckague · Jane Thomson · Jacqueline Medalye and Marina Prada, 2005. “Creating Sustainable Local Enterprise Networks”, *MIT Sloan Management Review*

Defourny, and ·Marthe Nyssens, 2010. “Social enterprise in Europ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third sector. Policy and Society”

Defourny, J. and Develtere,P., 1999. “The Social Economy: Worldwide Making of a Third Sector”. Fontenau, eds., *The Social Economy in North and South*. Belgium: Hoger Instituut voor de Arbeid

Giulia Galera·Carlo Borzaga, 2009. “Social Enterprise, an international

overview of its conceptual evolution and legal implementation", *Social Enterprise Journal,* 5(3)

IFF Research Ltd., 2005. *A Survey of Social Enterprise Across the UK,* research report prepared for The Small Business Service(SBS)

Jacques Defourny·Marthe Nyssens, 2008. "Social enterprise in Europe: recent trends and developments", *Social Enterprise Journal,* 4(3)

Jacques Defourny·Marthe Nyssens, 2010. Conceptions of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ntrepreneurship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Journal of Social Entrepreneurship, 1.1*

Jeff Trexler, 2008. "Social Entrepreneurship as an Algorithm: Is Socail Enterprise Sustainable?", *Emergence: Complexity & Organization*, 10(3)

Jeffrey Pfeffer·Geral R.Salancik, 1978.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Jennifer J. Griffin and John F. Mahon, 1997. "The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Debate, Twenty-Five Years of Incomparable Research", *Business & Society* Vol.36 No. 1. SAGE

Karl Birkhölzer, 2009.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 in Local Enconomic Development. EMES Conferences Selected Papers Series", 2nd EM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Trento(Italy)-July 1~4

Kathleen Wilburn·Ralph Wilburn, 2014. "The double bottom line: profit and social benefit", *Business Horizon 57,* Business Law and Ethics Corner

Michael E. Porter·Mark R. Kramer, 2006.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Michael E. Porter·Mark R.Kramer, 2011. "Creating Shared Value, how to reinvent capitalism-and unleash a wave of innovation and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Michael E.Porter, 1998. *Competitive Advantage,* New York: The Free Press

Monica C. Diochon, 2010. "Governance, entrepreneurship and effectiveness: exploring the link", *Social Enterprise Journal*, 6(2)

Neil Rotheroe, 2007. "Social Return on Investment and Social Enterprise: Transparent accountabil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Enterprise Journal*. 3(1)

Peter Roberts and Hugh Sykes, 2000.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SAGE Publications Ltd

Quarter, J., Mook,L., & Amstrong, A, 2009. *Understanding the Social Economy : A Canadian Perspectiv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Raphael Kaplinsky·Mike Morris, 2000. *A Handbook for Value Chain Research*

Robbie Davision, 2010. "Speke: a View of regeneration in a localized third sector setting", *Social Enterprise Journal,* 6(1)

Scott, R. W., 1981. *Organizations : 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Englewood Cliff, New Jersey: Prentice-Hall

Social Exclusion Unit, 2001.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Policy Action Team Audit.*

Stephen Ko, 2012. "Vi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the spillover effect", *Social Enterprise Journal,* 8(3)

Strauss A. and Corbin J. M., 1990. *Basis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INC.

Abstract

Factor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for Urban Regeneration

Jung-Eun Park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n alternative means of physical development, main method of the past to develop our cities, urban regeneration has been a lot of attention by this time. However, more recently, urban regeneration has been criticized in that we cannot find any clear differences between two ways, urban regeneration as a new way and a past development-oriented way. The definition of Urban regeneration is means being in harmony with not only physical regeneration but also the social and economic regeneration. However, it is still pointed out because they have been overlooked such comprehensive aspects that do effectively achieve the objectives of urban regeneration in the ultimate meaning of urban regeneration so far.

We had been focused only on the 'place' until now. However, the

most important point to overcome the limits of physical development is the considering 'people', and also fulfill urban regeneration as a means of alternative ones to the last development method. Furthermore comprehensive urban regeneration issues is the most recent core topic especially focusing on employment. The advantages of the social enterprise as a major strategy for linking ‘people’ to the existing ‘place’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Japan. In that it is possible to obtain the economic regeneration by providing jobs as well as social regeneration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in various economic activities.

Foreign countries are trying new things to social enterprises with bridge the ‘place’ and ‘people’ more focusing on jobs. However, the financial independence issues is the deepest problem in social enterprises, as a matter of fact. The social enterprises cannot works well in our society, even though social enterprises has been considered as the best way to connect the existing place and people.

The purpose and objects of the social enterprise are all desirable ones, but in reality it confronts big obstacles that secured the independence of social enterprises financially. Even though the government gives subsidies to social enterprises for several years they do not have the financial independence to overly rely on this so far; as a result, several social enterprises give up social enterprises out of business or shut down their business after the funding has been terminated. Consequently, the self-sufficient issues on social enterprises become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problems to solve immediately.

If so,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enterprise? We need to start from the most basic questions. In addition, how major factors of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effect coope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it takes place in the growth

process of the social enterprise, what effect while social enterprises are growing, why it occurs during that period.

From this point of view, Mixed Method Research has been employed to solve those research questions effectively in this research. This research has begun from discovering what the factors that explain the need for social enterprises as a means for connecting the people and the place. In order to verify the factors of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grounded theory was employed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multiple regression models was utilized as a quantative research at the same time.

Then, in the growth process of social enterprises to the next, it was derived the paradigm model of grounded theory how the factors make relationship and impact on each other. How the sustainablity factors work and impact while the enterprises are growing and the factors are performed in any order. Finally, during the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it was also analyzed how the sustainability factors for social enterprises are related to the place where they are located. As a result, the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shown the results of overseas early studies, it was found that making profit through producing and performing social purposes are not a single independent. It is increasing revenue through the producing and performing the social purposes of the social enterprises in relation to a positive mutually. In the case of social enterprises, fulfilling social purpose is closely related to improving revenue strategies in that it is not the way of marketing but the main items which has not been served in the public or private sector even though the vulnerable groups need for their daily lives.

Factors that affect the production and sales of social enterprises include number of vulnerable workers, training or education costs per

capita vulnerable workers, government subsidies of labor cost, amount of capital per workers,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in the region, total amount of returning their profit for the communit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job creation of vulnerable workers include the average wage per workers, the proportion of vulnerable workers in the whole workers,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subsidies for labor cost in the total subsidies, total number of workers receiving the opportunities of training or education. Means for fulfilling social purpose, it was found that the order of impact on the production and sales are the numbers of job creation for the vulnerable workers, total amount of returning their profit for the community, number of people who received social services respectively.

Second, it was discover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employ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growth stage. At the beginning stage, government subsidies for the labor costs and training or education costs per capita vulnerable workers were included as the significant important factors. At the developing stage, it was found that social enterprises make an effort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vulnerable workers through diverse training or education programs. Next, entering the maturity stage, social enterprises will join more on returning their profit to the community to expand their stable market in the public sector. Furthermore, the subsidies for business develop help the strengthen service for increase the sales.

Third, it reaches the developing phas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erprises and community become stronger by networking diverse social enterprises actively. Social enterprises would form a cooperative organization or network to enter the public market; as a result, they return more their profit to the community. The various activities for returning profit to the regions would be used to solve the urgent problems occurring in deprived areas such as severe physical decline of

neighborhood, social exclusion, and long term unemployment. We can easily find that these problems are the main issues about urban regeneration. As a result, we could solve the complicated problems in deprived areas. We need to prepare a countermeasure urgently by forming networking diverse social enterprises preferentially, and then making relationship stronger between the cooperative social enterprise organizations and the community.

We can find the meaning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this study differs from others in terms of the research focusing on the spatial point of view especially specialized on urban regeneration rather than the perspectives of management or social welfare. Second, the brand-new research method, mixed method research, recently introduced to overcome the classic dichotomy problem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ake advantages from each of them is employed to solve the research questions. Third, the first effort to connect the place issues to the people issues that we are trying to put our plans or policies into practice.

However, despite of the significances,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on the representativeness. It used 81 social enterprises case for empirical analysis because of the limited data participated, notifying management information program the contents of analysis also limited. Therefore, not only for the academic research but also the practical aspects in the field of social enterprises and urban regeneration in the future, it is required to build more detailed and accurate data of social enterprises. Based on this further various and elaborative data more advanced research would be performed actively. It is expected that on the basis of a variety of empirical data, diverse studies employing mixed method research would be actively introduced in the research field of urban regeneration and social enterprises.

keywords : urban regeneration, social enterprise,
factors of sustainability, mixed method research,
grounded theory, multiple regression model
Student Number : 2010-31006